

우리나라 學生集團行動의 行態分析(80年代)과 外國과의 比較

副教授 治安研究所長 李 相 安

< 目 次 >

- | | |
|-------------------------------|------------------------|
| I. 序 說 | 8. 政策變數에 의한 刺戟 |
| 1. 研究課題와 目的 | IV. 學生集團行動의 趨勢 및 性格變貌 |
| 2. 研究方法 및 範圍 | 1. 集團行動의 爭點(issues) 變貌 |
| II. 集團行動 Paradigm의 變遷 | 2. 集團行動性格 變貌 |
| III. 集團行動動因의 分析틀 | 3. 우리나라 學生集團行動 行態의 特徵 |
| 1. 集團行動凝集力(cohesion) 形成과 意思決定 | V. 外國學生運動과의 樣相 및 戰略比較 |
| 2. 動員力과 Communication 體系 | 1. 日本의 學生運動 |
| 3. 集團行動의 組織化와 下部構造 | 2. 프랑스의 5月事態 |
| 4. 鬭爭行動의 手段 | 3. 美國의 學生運動 |
| 5. 集團行動의 規範 | 4. 中共등 기타 나라의 學生運動 |
| 6. 集團行動의 環境的 要因과 系統 | 5. 우리나라와 外國學生運動과의 異同點 |
| 7. 매스컴 및 個人媒體에 의한 擴散과 傳達 | |

I. 序 說

1. 研究課題와 目的

全 國民의 25%가 學生인 우리 나라는 學生이 바로 유일한 資源의 寶庫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國家가 식민지로 되었을 때에는 독립쟁취의 보루로, 6·25전쟁 시에는 護國의 精銳要員으로서 자원의 소중한 가치를 발휘하였으며, 자칫 후진국의 先進化 단계에서 發生하기 쉬운 政治·社會체제의 부패상황에서는 시정 및 개혁의 統制집단으로, 發展가속화 過程에서는 戰略高級人力群으로서 位置와 역할을 정립해 온 일들에서 나라의 평가 받을만한 보배자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모든 現象이 그러하듯이 이와같은 일의 주체가 位置의 顛倒나 役割의 逸脫로 균형상태를 파괴하게 되면 힘은 엔트로피 현상을 일으켜 집중력을 잃게되며 향유할 수 있는 효용의 가치도 소실됨을 여러 사실의 경험에서 알 수 있는 일이고 보면 우리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學生資源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를 4 반세기 以上이나 지속함으로써 적극에너지화 되어야 할 자원이 집중력을 상실해가는 과제에 고민하는 變化를 갖게 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大學生들의 行動이 均衡狀態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世稱化된 “학원문제” 및 “학원사태”인 것이며 이로 因하여 國民은 생활고통을, 政府는 國力消耗를 강요당하게 되었으며 현저하게 향상되었음을 福祉의 均霑은 지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問題가 해소되지 않고 더 지속될 경우 21세기 國際競爭에의 낙후는 물론 國民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는 문제인식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이와같은 심각한 우려를 지닌 學園問題가 先進諸外國이 轉換期的 現象으로 경험했던 단일 봉우리적 行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원봉우리를 유지함으로써 이 行動의 內面에는 규명되지 않는 불변의 固定常數要因이 있을뿐 아니라 이것이 부분적으로 다른 독립변수와 상관적으로 作用함으로써 향후 상당기간 지속되거나 다른 형태로 변형될 可能性이 있을 것으로 推定判斷되므로 이에 대한 研究의 必要性은 결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과제해소의 現實的 要請에 따라 本 研究는 첫째, 學生들의 집합적 행동이 어떻게 現實的 集團行動으로 可能해지며 이때 이를 可能케 하는 구체적 행동동인이 무엇인가를 봄으로써 거의 4 반세기에 가깝도록 고원봉우리를 유지해 오고 있는 韓國 특유의 行態特性을 外國의 例와 비교접근 방법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와같은 객관적 입장에서의 실체에 대한 分析診斷이 學生集團行動의 問題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韓國的 學園問題의 경험적 현상을 적절히 설명하고 豫測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의 공리적 理論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이 理論構成을 위하여 集團行動에 대한 一般論을 가설형식으로 구성 演繹적으로 도출함으로써, 次期後續研究에서 계량적 分析에 의하여 集團行動論을 學問化 하고자 하는데 뜻을 둔 것이다.

끝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學生集團行動의 내심적 욕구와 外形的 행동간의 인과논리가 확인되면서 흔히 外見上으로나 단편적으로만 觀察하고 범하기 쉬운 偏見을 줄이고 이 問題에 直接·間接으로 影響을 주고받는 학부모, 大學의 교수, 教育 및 치안의 政策決定者 및 一線警察의 視覺을 합일화 시키는데도 그 目的을 둔 것이다.

2. 研究方法 및 範圍

일반적으로 社會現象을 연구대상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본질적으로 人間의 社會的 行態(human behavior)에 관한 어떤 規則性(regularity)을 발견할 수 있다는 假定에서 출발하게 된다. 즉 인간형태의 規則성과 상황 및 사건과의 因果關係인 왜(why)를 설명적 방법(explanatory research)을 통하여 행함으로써 人間の 社會的 行態에 관한 관찰, 기록 및 資料間的 先後關係, 趨勢, 影響要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또 미래를 쉽게 예측하여 대처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本研究에서는 우선 人間の 社會的 行動 중 集團行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概念規定과 이를 어떤 관점에서 관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接近方法을 여러 시각과 견해에서 일별해 본 다음 우리나라 大學生의 集團行動實體를 분석한 文獻 및 資料에서 暫定假說을 導出, 이를 後續研究에서 경험적으로 檢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우선 이를 토대로 對應戰略을 마련하는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으므로 集團行動의 診斷이 先行課題가 됨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하겠다.

어떤 行動을 작위적으로 적극적으로 행하건, 부작위적으로 그 반대로 행하건 그것은 個人水準에서 일어나는 理性的 人間の 독특한 현상이므로 集團行動의 연구는 個體의 本質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大學生의 集團行動 연구도 大學生 個個人的 性格, 態度, 社會化 과정을 중심으로 참가와 불참 그리고 온건과 과격을 토대로 行動過程을 研究할 수 있겠으나 동시에 集團의 規範이나 性格, 패닉現象에 의한 참가의 증용, 엘리티즘에 의한 그룹적 변수 그리고 歷史的 變遷에 의한 또다른 유형의 集團行動의 설명이나 단순한 個體모임이 아닌 '基' '團'의 원자의 구성원으로써 特性和 性格으로 集團行動의 結果를 설명하는 경우에는 그 分析水準이 상이하게 설정될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大學生들의 教育外的 行動에 관한 社會的 行動에 관한

어떤 규칙성을 把握하기 위하여 研究의 性格上 時代別로 나누어 分析水準을 보기로 했다.

즉 1900年以後 1945년까지는 日帝下의 民族의 自主·獨立이라는 行動側面에서 集團의 水準이 강조될 수 있고 해방이후 1970년대말, 즉 제4공화국 때까지는 政治, 行政, 社會體制에 대한 통제적 feedback 의미의 행동성이 집단적 수준을, 그리고 80年 이후 제5공화국 때에는 그 行動의 양상이 개별이식화 되어가고 있는 속성에서 개체수준이 강조된 점이다.

결국 이것은 研究對象을 무엇으로 해야 하며 그 水準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의 문제로서 Eulau는 個體主義와 神秘主義의 양극화를 배제하고 하나의 連續線上에서 상대적으로, 보아 分析단위와 分析水準을 결정하고 또 대상단위와 주제단위도 구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따라 보면 대상단위의 속성을 근본적 단위에서 구성할 수도 있으며 또 환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集團行動의 분석수준은 집단인 집합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Eulau의 주장에 따라 集團行動의 주체인 學生集團을 대상단위로 택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수준에서도 研究할 수 있고 또 이의 하위수준인 학생집단 내부의 結束體내지 核心團體인 學生會, 씨클, 과별, 個人등의 주제단위로 환원하여 研究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말하면 80년대 자율화이후의 양상과는 별개로 日帝下와 50~70년대의 學生集團行動은 個人的 水準의 行動과 같은 속성의 크기가 아닌 흐름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생성적 속성이 發見될 수 있으며, 범사회적 현상화되어 있는 이問題를 개체 및 부분중심의 micro-approach로서는 만족한 설명이 어렵고 사회현상 자체가 그렇하듯 學生集團行動이 유기체적 연관작용으로 장기적으로는 歷史的 맥락과 社會構造, 制度, 그리고 政策決定의 要因과도 關係가 있을뿐 아니라 集團行動을 일으키는 集團體의 구성이 조각난 부분으로 모아진 것도 있지만 그 核心勢力은 分化된 부분으로 구성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單純合計的의 의미도 學生集團 行動을 論하고 규정할 경우 합성상의 오류를 피하기 힘든 점이 있다.

결국 이말은 學生의 集團行動을 통한 行態의 사회적 산출물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학생행동의 형태를 유추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때 Eulau의 주장에 따라 설명하려는 단위인 대상단위는 學生의 集團 및 集團行動으로 하고 이 대상단위인 集團行動을 규명하기 위한 관찰단위로는 학생씨클 및 그 개체단위인 학생 개인으로 하되 자료수집이 가능한 日帝下 및 50年代, 60年代, 70年代, 80年代

를 區分하여 考察하기로 하자.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분석수준 및 분석단위를 결정하고 本研究에 必要한 資料 蒐集은 시간적으로는 1910년대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從斷的 資料에 의존함으로써 集團行動의 동인을 把握함에 단견적 편견을 예방함은 물론 이 行動의 뿌리내지 맥에 대한 설명력과 기술력을 높이려 한 반면 80년대 이후의 集團行動에 對하여는 단층적 資料에 의거 심층적 分析을 시도하였다.

II. 集團行動 Paradigm의 變遷

우리나라 學生들의 集團行動은 斷層的 資料나 시각으로만 보아서는 그 實體를 把握하기 힘들다. 이 行動自體가 일시적 현상의 빈도적 연장이 아니라 맥락적 연장의 特性을 지니며 이와 연관되는 環境的 要因이 歷史的·時代的·疎外的 要因으로 變化와 자극을 주었기 때문이다. 즉, 日帝下의 암흑기에는 民族的 民衆運動의 선봉장으로서 自主獨立의 가치를 旗幟化하였으며, 50년대에는 自由, 60년대엔 社會正義와 平等을, 그리고 70년대엔 이들 가치가 共存하면서 80년대를 맞은 것이다.

그러나 80년대엔 이들 行動行態의 가장 기초적이라 볼 수 있는 paradigm의 轉換이 있다고 보아지며 이것은 80년대 이전의 것과는 상이한 것으로 거기에는 전술한 政治 利益集團의 性格, 社會心理的 集合行動의 의미와 政治·文化·宗教 등의 이데올로기적 轉換이 있음을 發見하게 되고 行動決定의 犯罪經濟學的 기준 적용요소가 개입된 것으로 이하 다음 分析에서 입증된다. 특히 集團行動 paradigm의 80년대 이후의 顯在化된 이데올로기적 경향은 1945년 8·15해방 이후의 潛在的 不純意識의 뿌리에서 그 맥을 이어움을 알 수 있다.

즉 8·15해방 직후 서울대의 國立大學反對를 주장한 좌경의식화된 서울대 일부 學生들의 테러행위가 48년 第1共和國의 樹立과 더불어 地下化 했다가 50년 6·25를 前後로 뿌렸한 좌경集團構成員으로 表面化한 것이 左傾化의 絶頂을 이루었다. 그 이후 60년 4·19의 사회혼란을 이용 60년 11월 民族統一聯盟을 결

를 區分하여 考察하기로 하자.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분석수준 및 분석단위를 결정하고 本研究에 必要한 資料 蒐集은 시간적으로는 1910년대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從斷的 資料에 의존함으로써 集團行動의 동인을 把握함에 단견적 편견을 예방함은 물론 이 行動의 뿌리내지 맥에 대한 설명력과 기술력을 높이려 한 반면 80년대 이후의 集團行動에 對하여는 단층적 資料에 의거 심층적 分析을 시도하였다.

II. 集團行動 Paradigm의 變遷

우리나라 學生들의 集團行動은 斷層的 資料나 시각으로만 보아서는 그 實體를 把握하기 힘들다. 이 行動自體가 일시적 현상의 빈도적 연장이 아니라 맥락적 연장의 特性을 지니며 이와 연관되는 環境的 要因이 歷史的·時代的·疎外的 要因으로 變化와 자극을 주었기 때문이다. 즉, 日帝下의 암흑기에는 民族的 民衆運動의 선봉장으로서 自主獨立의 가치를 旗幟化하였으며, 50년대에는 自由, 60년대엔 社會正義와 平等을, 그리고 70년대엔 이들 가치가 共存하면서 80년대를 맞은 것이다.

그러나 80년대엔 이들 行動行態의 가장 기초적이라 볼 수 있는 paradigm의 轉換이 있다고 보아지며 이것은 80년대 이전의 것과는 상이한 것으로 여기에는 전술한 政治 利益集團의 性格, 社會心理的 集合行動의 의미와 政治·文化·宗教 등의 이데올로기적 轉換이 있음을 發見하게 되고 行動決定의 犯罪經濟學的 기준 적용요소가 개입된 것으로 이하 다음 分析에서 입증된다. 특히 集團行動 paradigm의 80년대 이후의 顯在化된 이데올로기적 경향은 1945년 8·15해방 이후의 潛在的 不純意識의 뿌리에서 그 맥을 이어움을 알 수 있다.

즉 8·15해방 직후 서울대의 國立大學反對를 주장한 좌경의식화된 서울대 일부 學生들의 테러행위가 48년 第1共和國의 樹立과 더불어 地下化 했다가 50년 6·25를 前後로 뿌렸한 좌경集團構成員으로 表面化한 것이 左傾化의 絶頂을 이루었다. 그 이후 60년 4·19의 사회혼란을 이용 60년 11월 民族統一聯盟을 결

성하여 학생시위를 주도하는 등 活動을 계속하다가 61년 5·16 군사혁명으로 社會가 안정되자 다시 地下化하여 64,65년의 韓·日會談 反對, 67년의 6·8 총선부정규탄, 69년의 三選改憲反對, 73~79 까지의 維新撤廢 등의 社會혼란이 일어날 때마다 학생시위에 적극 가담 혹은 배후선동·조정 등으로 學生은 물론 一般市民의 拘押에 核心을 이루며 그 맥을 지속적으로 승계시켜 意識 및 半意識의 集團數를 擴充해 왔으며, 79년 10.26, 80년 5.17의 國家的 위기에 그 勢力의 위력을 광주사태와 부산 美文化院事件 등에서 보여준 것이다.

이 이데올로기적 成分의 學生集團은 83年 12月 學生自律化政策의 發表와 함께 本格的인 意識화 혼란을 착수하여 서울대의 '武裝蜂起構想' 사건과 85年의 美國유학생 간첩단 학원침투사건 등으로 이어지면서 各種 學生集團行動의 事件들 에 直·間接으로 연계되어 왔음을 알 수가 있다. 물론 學生集團行動의 要因은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 동기에 의하지만 80년대 이후의 양상은 이 이데올로기의 特性이 일부 학생에게서 強하게 나타나고 있음은 새로운 變化라고 보여진다.

Ⅲ. 集團行動動因의 分析틀

본지에서 사용될 分析의 틀은 集團行動에 關한 小集團論의 社會心理學的 概念變數를 撲用 내지 變用한 것이다. 이 理論은 전술한 바와 같이 리더십, 役割類型, 분위기, 性格, 응집성, 規範의 6個 變數로서 集團行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同學生의 集團行動에 關한 研究에서는 細分하여 凝集性, 意思決定패턴, 動員力, 情報傳達의 體系, 조직화 및 하부구조, 行動戰略과 手段, 集團의 規範, 環境要因과 系統體系의 8개 內生變數와 매스컴과 政策變數의 2개 外生變數를 追加變形하여 사용키로 한다. 왜냐하면 첫째, 小集團論에서는 강조되지 않았던 意思決定패턴이 學生들의 集團行動쪽에서는 行動을 誘發시키는 결정적인 變數로 대두되므로 이를 役割類型에서 變形했으며, 둘째, 小集團論에서는 leadership으로 강조되었던 것을 學生動員 및 參加誘導의 권위로 보아 動員力 즉 動員의 힘으로 봄으로써 이에 獨特한 權威(authority)의 作用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끝으로 Communication 體系, 下部構造 및 조직화, 行動代案의 選擇 등을 追加함으로써 集團行動의 環境的 要素에의 投入(input)과 學生들의 支持와 反對, 요구와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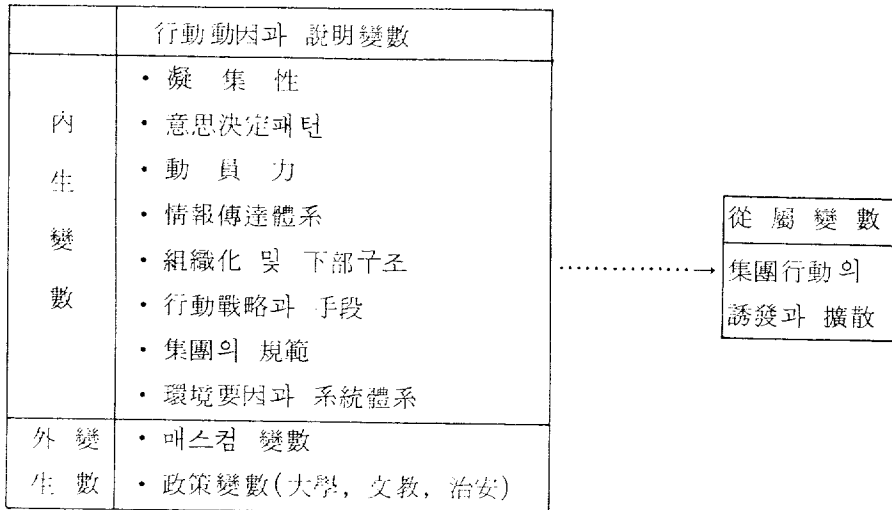
성하여 학생시위를 주도하는 등 활동을 계속하다가 61년 5·16 군사혁명으로 社會가 안정되자 다시 地下化하여 64,65년의 韓·日會談 反對, 67년의 6·8 총선부정규탄, 69년의 三選改憲反對, 73~79 까지의 維新撤廢 등의 社會혼란이 일어날 때마다 학생시위에 적극 가담 혹은 배후선동·조정 등으로 學生은 물론 一般市民의 규합에 核心을 이루며 그 맥을 지속적으로 승계시켜 意識 및 半意識의 그룹數를 擴充해 왔으며, 79년 10.26, 80년 5.17의 國家的 위기에 그 勢力의 위력을 광주사태와 부산 美文化院事件 등에서 보여준 것이다.

이 이데올로기적 成分의 學生集團은 83年 12月 學生自律化政策의 發表와 함께 本格的인 意識화 혼란을 착수하여 서울대의 '武裝蜂起構想' 사건과 85年の 美國유학생 간첩단 학원침투사건 등으로 이어지면서 各種 學生集團行動의 事件들 에 直·間接으로 연계되어 왔음을 알 수가 있다. 물론 學生集團行動의 要因은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 동기에 의하지만 80년대 이후의 양상은 이 이데올로기의 特性이 일부 학생에게서 強하게 나타나고 있음은 새로운 變化라고 보여진다.

Ⅲ. 集團行動動因의 分析틀

본지에서 사용될 分析의 틀은 集團行動에 關한 小集團論의 社會心理學的 概念變數를 撲用 내지 變用한 것이다. 이 理論은 전술한 바와 같이 리더십, 役割類型, 분위기, 性格, 응집성, 規範의 6個 變數로서 集團行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同學生의 集團行動에 關한 研究에서는 細分하여 凝集性, 意思決定패턴, 動員力, 情報傳達의 體系, 조직화 및 하부구조, 行動戰略과 手段, 集團의 規範, 環境要因과 系統體系의 8개 內生變數와 매스컴과 政策變數의 2개 外生變數를 追加變形하여 사용키로 한다. 왜냐하면 첫째, 小集團論에서는 강조되지 않았던 意思決定패턴이 學生들의 集團行動쪽에서는 行動을 誘發시키는 결정적인 變數로 대두되므로 이를 役割類型에서 變形했으며, 둘째, 小集團論에서는 leadership으로 강조되었던 것을 學生動員 및 參加誘導의 권위로 보아 動員力 즉 動員의 힘으로 봄으로써 이에 獨特한 權威(authority)의 作用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끝으로 Communication 體系, 下部構造 및 조직화, 行動代案의 選擇 등을 追加함으로써 集團行動의 環境의 要素에의 投入(input)과 學生들의 支持와 反對, 요구와 욕구

등을 產出 (out put) 로 轉換 (conversion) 시키는 過程의 特異性을 能率의 次元에서 보고, 이때 이를 行動者 (actor) 들이 가지고 있는 價値 및 規範을 동시에 함으로써 어떤 行動이 可能하리라는 產出을 豫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들 變數間의 關係가 이상 10個의 動因變數가 集團行動의 횡수와 양상에 미치는 影響 못지 않게 궁금한데 이들의 상호 影響力의 방향은 一方的이 아니어서 因果模型 (Causal analyss)의 검증은 어려울 뿐 아니라 論爭의 소지가 있게 되므로 주로 多重回歸分析 (multiple regression)에 의존하게 되는데 향후 과제연구에서 주요 分析技法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우선 여기에서 이들의 關係를 도식으로 제시하면 이상의 表와 같다.

이상의 分析들에서 제시된 變數 (variables)에 대하여 상세히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1. 集團行動 凝集力 (cohesion) 形成과 意思決定 Model

한사람도 아닌 두사람 以上이 모여 일련의 行動에 參加하게 될 때에는 우선 이들이 어떤 要因으로 結集 (aggregrate or grouping)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모인 集團은 다시 어떻게 結束 (Cohesion)하게 되며 다음 이 集團은 어떤 意思決定 (decision making)과정을 거쳐 行動化 (action) 하는가 하는 過程이 分析해 볼 만

한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1) 結集要因 (aggregation factor)

自律化 이후의 學生集團行動의 結集要因은 行動促發의 要因을 多元化시킨데 특징이 있다. 우선 一次的으로 그 소재를 市民 및 一般學生의 生活面에서 찾아 이를 刺戟的으로 각색시켜 제시하는 點이다. 즉 軍입대, 동료의 사망, 女學生 醜行, 統一, 광주사태, 勞動, 農民, 庶民生活의 現場調查, 市場 및 產業體에 원정, 택시, 木洞, 勞動事態現場 介入 등에 參與함으로써 學內에서는 一般學生, 學外에서는 宗教, 勞動, 在野의 刺戟을 통한 一體感을 형성시킴으로써 結集을 시도한다. 다음 단순한 政府에 대한 비판이나 불만의 段階를 넘어 우리 社會體制全般을 부정하고 體制를 타도하는 社會革命을 주장함으로써 結集된 參加者의 行動目標을 巨視化시켜 行動을 合理化한다. 이는 82년 4월의 釜山美文化院放火事件, 84年 10월의 民推委事件, 85年 5월의 서울 美文化院 점거농성사건, 85年 11월의 民正黨 점거농성사건 등에서 目標을 現體制의 暴力에 의한 타도에 둠으로써 結集이 可能케 된 것이다.

(2) 結束要因 (cohesion factor)

다음으로 이들 集團成員을 結束 (cementation)시키는 방법상의 특징으로는 行動하기 전에 철저한 精神結合을 段階的 節次에 의하여 形成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大學生들의 意識化이다.

意識化란 意識 (consciousness)에서 상징화된 말로서 자각하고 알아차림을 의미한다. 즉, 사물을 깨닫고 分別하는 마음의 作用으로 넓게는 知·情·意를 包含한 精神現象을 말하는 것으로 大學生들의 意識化도 같은 맥락에서 쓰이는 용어이나 그것이 부정적 偏頗的이라는 데서 그 깨달음과 分別力이 왜곡된 데에 문제가 있다.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인식하고 意識할 때에는 항상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으며 또 그 內面的 關係는 因果論理가 形成되어 있음에도 그 현상을 일방적으로 보도록 유도함으로써 사람은 否定的 潛在를 갖게 되며 이에 의한 선입견이나 潛在力은 순간적인 판단을 合理的으로 할 수 없게 된다. 지금 大學生들이 集團行動의 結束作用으로 동원하고 있는 意識化는 政治的으로 現社會制度는 特權層과 資本家계층만 위주로 함으로써 여타계층은 소외되고 抑壓받았다는 것과 經濟力도 수탈당하고 社會·文化的으로도 차별을 받음으로써 學生·農民·勤勞者 및 진보적 지식인과 民衆은 스스로 깨어나 權利를 찾아야 한다는

論理를 주장함으로써 이런 行動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 意識化 作用은 대체로 6段階로 進行되는데, 1段階는 人物選定 및 良書 권 유단계이며, 2段階는 분위기 조성단계, 3段階의 합숙教育訓練을 거쳐 4段階의 學習試驗과 5段階의 實踐行動方案 모색이 지나면 최종 6段階에서 비로소 實行段階에 돌입하게 된다. 이를 대체로 4段階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段階로 理念化 위주 서클 및 學會活動을 위해 매년 3월 新學期가 되면 理念서클의 멤버들을 學緣과 地緣위주로 엄격히 선발한다. 이때 주로 고교성적·지능지수·리더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다음으로 가족관계에서 장남이 아닌 者, 지방출신, 소시민 가정출신자를 우선으로 하여 선발한다. 이 過程이 끝나면 신입생 환영회를 통하여 參與意識을 고취시키고 現實의 환상을 깨고 서클 活動을 강조함으로써 '벽깨기' 작업이 시작되고 신입생의 순수성과 불같은 情熱, 그리고 냉철한 理性和 높은 理想을 토대로 몇차례 벽깨기 작업의 모임이 있는 동안 社會의 전위역할 의식을 갖도록 한다. 다음 벽깨기가 끝나면 본격적인 세미나를 시작하는데 이때 주어진 교재인 地下新聞, 不法刊行物(깃발 1·2號, 이화 高論)등을 탐독, 發表와 討論을 통해 信念을 確立시켜 나가게 된다. 그리고 다음단계의 MT(membership-training), 외부인사초청강연, 現實 비판사례조사 發表, 現實 풍자마당극, 데모노래 등을 통해 問題意識의 內心化와 동료간의 一體感을 조성한 다음 실제로 2段階에서는 農村奉仕活動, 產業體의 위장취업, 캠프행사 등을 통해 자기의식심화와 의식전파를 경험한 다음 3단계에서 학내 소요지지 기반을 擴充하고 대학간의 연계 및 학외의 노동·종교·재야와의 연계투쟁에 동의한 다음, 집단가두시위를 暴力化시킴으로써 政治鬭爭에 이르게 된다.

끝으로, 이와같은 일련의 全過程(full Course)이 끝나면 이들은 鬭士가 되며 보다 完備한 지위확보를 위하여 韓國 근대사의 연구 및 우리 經濟의 마르크스 경제이론에서 본 실체를 從屬理論→解放神學→革命論을 연구함으로써 左傾化 段階에 진입하게 되고 겨울방학에는 주로 日語를 공부하여 좌익서적 탐독에 대비하며 리더로 등장한다.

이와같은 일련의 행동요원의 양성 및 集團結束體制는 주로 서클 중심임이 특징이다.

(3) 行動의 意思決定過程과 模型(decision-making)

여러 個人이 關與 및 參與함으로써 意思決定이 이루어질 때 이의 過程과 유형

은 集團의 特性에 따라 달라진다. 즉 構成員의 가정환경, 本人의 가치관, 學校에서의 生活成就水準의 정도에 따라 意思決定過程에서 나타나는 協助나 葛藤의 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때 集團의 特性을 응집성과 合理性面에서 고려할 때 응집성과 合理性이 가장 높은 水準의 것과 그 중간, 그리고 아주 낮은 경우로 大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가장 높은 경우는 意思決定에 參與하는 모든 個人 등이 완전히 合心하는 경우가 될 것이며, 그 反對인 가장 낮은 水準에서는 個個人의 생각과 行動이 個別化되어 흩어지는 경우일 것이다. 이를 조직 및 政策決定論者들이 말하는 의사결정 유형에서 찾아 보면 처음 경우는 Allison의 model I (rational actor model)에 가까우며, 두번째의 경우는 Allison model II (organizational process model) 혹은 Firm model에 그리고 마지막의 경우는 Allison model III (bureaucratic-politics paradigm)와 Garbage can model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Allison의 모델은 政府의 政策決定過程을 說明하기 위하여 상호배타적인 3 모델을 제시한 것이지만 集團의 응집력을 중심으로 결정유형을 說明할 때는 어느 集團의 경우이든 원용이 可能하다고 보아 學生들의 集團行動에 적용해 說明의 도구로 사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Allison은 政府에 대한 假定을 Model I에서는 잘 조정된 유기체로, II에서는 半獨立적인 느슨한 하위조직 등의 結合으로, 그리고 III에서는 서로 獨立적인 參與者의 集合體로서 취급한다. 이 分析틀에 의한 경우 學生集團行動에 參加하는 者는 個人的 利害關係를 떠나 오직 學生集團行動體의 利益과 目標 등을 위하여만 생각하고 행동하고 個人的 利益을 고려치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이 集團의 決定過程에서 極大化해야 할 目標은 오직 集團目標뿐이며 따라서 個個人 등의 利害關係 충돌은 없는 것으로 전제한다. 그러므로 行動過程에 參與하는 個人은 能力과 의욕이 충분한 것으로 보아 長期的 行動方針 결정에도 일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최근의 學生集團行動이 不法團體인 三民團, 民推委, 民民彈 등에 수행될 때 그것은 그 집단의 擬集要서이 ideology에 가까울 때 그것은 높은 擬集性和 일사불란한 行動統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Allison의 合理模型과 유사한 의사결정 행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tool에 의한 說明이 최근의 學生集團行爲를 가장 가깝게 說明할 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理想化된 서클을 제외한 기타 學生들의 集團行動에의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은 다시 2가지 형태로 나누어 설명해 볼 수가 있다. 즉 Model II적인 것으로 學生集團行動의 추진단체간에 어느 정도의 半自律性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의 추진단체 內에서도 어느 정도의 下位體의 自律的 의사결정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로 이때 利害關係가 크게 影響을 받을 경우에는 상호타협이 불가피해지며 양자의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sup-optimum(quasi-solution)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5월 혁명을 目標로 했던 全學聯 산하의 서울대의 '민민彈' 고려대의 '反民團' 연세대의 '光鬪委' 成대의 '三民鬪委' 등이 각각 目標達成을 위하여 上位조직의 결정에 어떻게 관여하는가?

또 서울대 內의 民推委는 '인천學鬪' '學鬪' '民鬪' '弘報委' '연락책' '깃발' 등의 이 의사결정 방법과 크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위구조의 의사결정 방법이 조직전체에 큰 影響을 주게 되므로 하부조직들은 不確實性을 회피하여 의사결정의 원활을 위해 規則을 習得하고 S.O.P와 프로그램 목록을 만들어 의존하게 되는데 이는 주로 集團行動의 綱領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보아진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集團行動戰術指針書이며 行動要領을 제시한 깃발 1, 2 號이다. 이에 의하면 「깃발 1 號」에서 운동권의 통일성 확보 및 대중적 기반의 획득과 더불어 연대투쟁과 학교 밖으로의 진출 및 근로자와의 합동시위를 제시하고 있는 「깃발 2 號」의 目錄에서는 學生運動의 비판과 아울러 앞으로의 투쟁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계급적 모순의 타도를 目標로 한 民衆支援鬪爭과 對政府 이데올로기 투쟁인 政鬪로 나누어 明洞·光化門 등 중산층 밀집지역에서의 소비지鬪爭과 목동 등 빈민층에서의 生産地鬪爭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學生集團行動의 추진단체는 다음의 行動代案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을 기억창고(memory store)에 보관했다가 이와 유사한 상황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채택된 것이나 마련된 代案에서 즉시 의사결정을 하고 行動을 習慣的으로 하는 점을 찾아 볼 수 있어 최근의 學生集團行動의 의사결정 양태에서는 Allison Model II의 특성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끝으로 일부 學生 중에는 個人들이 전혀 凝集性이 없이 참여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음을 볼 수 있다.(model III). 구성원 사이의 凝集性이 약한 경우 예컨대 集團行動을 하는 目標를 모르거나 자기 個人의 目標가 결부되

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個人은 個別的 行動을 하게 되며 個人들 간의 利害關係가 상충되는 경우 갈등이 심화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個人 간에 종합조정이나 행동통일이 별도로 必要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일사불란한 意見合致에 의한 意思決定과 行動에의 實行은 힘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최근의 學生集團行動時에 이루어지는 이들의 意思決定 모델은 意識化되어 처음부터 이데올로기의 要因으로 結束되어 있는 集團에서는 주로 Allison Model I에 의한 合理的 行動者의 意思決定에 따름으로써 그 結束 및 凝集이 강하고 이에 따라 行動 또한 흑백논리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음을 물론 이 結束을 해체함은 극히 어려운 일로서 별도의 대책이 뒤따라야 가능해 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다음으로 처음부터 各 個別그룹으로 이루어졌거나 各 大學別로 聯合하여 만든 system에서 그의 下部單位로 형성된 sub-system으로 구성된 學生團體(예컨대 全學聯 등)이라면 어느 정도 大學別, 서클別 行動單位에 대하여 獨自性을 인정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結束力이나 凝集力面에서는 Allison Model I에서 보다 덜하므로 對應과 解體에 있어 各 下部單位의 주동자 내지 리더에 대해 현장으로부터의 격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처가 보다 용이해 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Allison Model III에 대한 說明이 가능해 질 수 있는 것은 최근의 學生運動이 政治利益의 個別化 추구하고 社會 병리적 심리·elite의식·犯罪經濟的 行動判斷 등으로 各個化現象이 뚜렷해지므로 이들의 表面的 行動은 과격화되고 集團行動규모도 擴大되기도 했으나 內面的 結束力은 약화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대응은 강한 制裁와 一貫된 報償原理가 交換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는 가능해 질 수 있는 것으로 判斷할 수 있다. 다만, 이데올로기 要因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유가 결정적으로 주어질 때 Model I에 의한 意思決定이 大學內의 各 下位團體로 그리고 大學間에 擴散되어 Model II에 의한 의사결정 형태로 연결될 때 이때의 의사결정과 行動에의 형태로 연결될 때 이때의 意思決定과 行動에의 參與로 위험할 수 있으며 심히 우려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

2. 動員力과 Communication 體系

集團行動分析의 要諦는 健全한 凝集 및 結束力이 어디에 起因되느냐 하는 것이지만 이 모든 行動의 動因은 결국 그 集團의 리더에게 있으며, 이 리더에게는

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個人은 個別的 行動을 하게 되며 個人들 간의 利害關係가 상충되는 경우 갈등이 심화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個人 간에 종합조정이나 행동통일이 별도로 必要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일사불란한 意見合致에 의한 意思決定과 行動에의 實行은 힘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최근의 學生集團行動時에 이루어지는 이들의 意思決定 모델은 意識化되어 처음부터 이데올로기의 要因으로 結束되어 있는 集團에서는 주로 Allison Model I에 의한 合理的 行動者의 意思決定에 따름으로써 그 結束 및 凝集이 강하고 이에 따라 行動 또한 흑백논리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음을 물론 이 結束을 해체함은 극히 어려운 일로서 별도의 대책이 뒤따라야 가능해 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다음으로 처음부터 各 個別그룹으로 이루어졌거나 各 大學別로 聯合하여 만든 system에서 그의 下部單位로 형성된 sub-system으로 구성된 學生團體(예컨대 全學聯 등)이라면 어느 정도 大學別, 서클別 行動單位에 대하여 獨自性을 인정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結束力이나 凝集力面에서는 Allison Model I에서 보다 덜하므로 對應과 解體에 있어 各 下部單位의 주동자 내지 리더에 대해 현장으로부터의 격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처가 보다 용이해 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Allison Model III에 대한 說明이 가능해 질 수 있는 것은 최근의 學生運動이 政治利益의 個別化 추구하고 社會 병리적 심리·elite의식·犯罪經濟的 行動判斷 등으로 各個化現象이 뚜렷해지므로 이들의 表面的 行動은 과격화되고 集團行動규모도 擴大되기도 했으나 內面的 結束力은 약화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대응은 강한 制裁와 一貫된 報償原理가 交換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는 가능해 질 수 있는 것으로 判斷할 수 있다. 다만, 이데올로기 要因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유가 결정적으로 주어질 때 Model I에 의한 意思決定이 大學內의 各 下位團體로 그리고 大學間에 擴散되어 Model II에 의한 의사결정 형태로 연결될 때 이때의 의사결정과 行動에의 형태로 연결될 때 이때의 意思決定과 行動에의 參與로 위험할 수 있으며 심히 우려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

2. 動員力과 Communication 體系

集團行動分析의 要諦는 健全한 凝集 및 結束力이 어디에 起因되느냐 하는 것이지만 이 모든 行動의 動因은 결국 그 集團의 리더에게 있으며, 이 리더에게는

leadership과 그의 集團內에서의 權威(authority) 類型이 또한 분계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情報을 傳達하고 集團을 事實상 움직이는 power인 communication 體系가 무엇인가가 分析의 單位와 對應戰略을 수립함에 核心이 된다.

前述한 바와 같이 하나의 新入學生이 여러 段階의 洗滌化 過程을 거쳐 反骨 내지 鬪士가 된 後 女王蜂 教育을 끝내면 리더로 되고 이 리더의 위치는 一部構造가 除籍되거나 사라지면 후계자로서 자동적으로 등장하는 릴레이식 自轉體制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때 리더는 集團行動에 多數의 學生들을 동원하여 目的達成 및 集團유지를 위하여 종래의 카리스마적(Charismatic authority)에 의한 선동으로는 動員力이 설득될 수 없음을 알자 최근의 민정당연수원 접거사건 등에서는 야유회 등을 빙자하여 속임수와 강요로 시위 경험이 없는 저학년 등을 參加시키기도 한 것이다. 이 외에 최근 學生集團行動을 여성운동과 합치시켜 女學生 파워를 강화하면서 교내지위 향상에서부터 主導役割까지 담당하게 한다. 이는 80년대 이후의 뚜렷한 현상으로 서울대가 79년 비교 8.4%→23.3%로, 고려대가 8.4%→23.3%로, 그리고 연세대가 21%→26%로 여학생입학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중 20~30%가 集團行動에 참가하고 있으며 일부학생들의 경우 조직이탈의 방지와 결속을 다지기 위해 도덕적으로 타락한 狀態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 결속상징(symbol)의 무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大學間 연계와 同時多發鬪爭을 위하여 全學聯 三民鬪委 中心의 연계강화·역정보누설·논조동일 등으로 노동현장과 도시문제지구에 침투하여 소외불만 계층을 선동투쟁하고 核心인사의 教育, 社會不安·유도 등을 하며, 反政府 인사 및 단체와의 연대를 위하여 공개토론, 규탄대회 개최를 피하며 외국신문기자 등과의 인터뷰, 외국공관점거와 외교관공개면담요청 등으로 國際的 反韓輿論 助成 등으로 communication 體系를 연결한다. 특히 忠南大의 우리 文化研究會事件에서는 週一回씩 會員家를 轉轉하거나 除籍生 등의 自炊家를 전전하면서 直接 문제학생들을 糾劾하여 地下서클의 意識化活動을 擴大해 가는 communication 형태를 유지하기도 한다.

특히 學生運動을 勞動運動과 연계시키는 傳達體系로서 勞組가 없는 業體에 들어가서는 勞組를 결성하고 勞組가 있는 業體에서는 既存勞組를 어용화시켜 자기들의 同調者를 조합장으로 추대, 주도권을 장악하는가 하면 社內 유인물 配布, 社內 종교단체 등과 연계활동, 사업주 및 정부비방 농성을 주도함으로써 勞使間

문제를 政治化시키는 傳達體系를 유지해 나간다.

이외 최근의 집단행동권 學生들의 動員(mobilization)과 傳達(communication) 體系的 특징적 양상변화는 다음과 같다.

즉 첫째, 活動과 命令體制가 官僚組織化되어 動員과 意思傳達이 計劃的이고 신속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의 직무가 주어지면 미리 마련된 S.O.P에 따라 多數의 大學이 순서대로 참가해 나간다는 것이다.

둘째, 新入構成員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大學의 新入生에 대한 動員 및 傳達體系를 우편·전화로 내용을 傳達하거나 선배나 상급생이라는 명목으로 호별방문을 하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설득시켜 나가는 새로운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사자인 학생뿐 아니라 學父母에게 양해를 구하여 확실한 結束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學校와 警察에 대한 마타도어手法과 겨울camp 活動이다. 集團行動圈學生들은 리더의 보호와 行動의 지속을 위하여 선의의 희생자를 만들 뿐 아니라 大學의 合格者 중 警察의 과격행동이나 學校當局의 교문폐쇄 등의 조치에 反感을 갖도록 하는 겨울 Camp 集團行動을 전개함으로써 이들의 인식변화의 첫 계기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어떤 活動 및 集團行動에서는 그 目標達成을 위하여는 構成員을 어떻게 하나의 힘으로 動員하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의사전달체계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중요한 관건인데 學生들의 경우 특이한 양상으로 發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集團行動의 組織化와 下部構造

集團行動을 動態的 過程에서 考察할 때 組織化는 그 集團行動이 추구하는 目標達成의 核心的 과제가 될 뿐 아니라 이 集團行動의 公式·非公式의 目標가 社會의 基本的 規範을 벗어날 때 조직화의 여부는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와같은 의미의 組織을 C. Barnard는 어떤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사람 이상의 힘과 活動을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協同體系로 보았다. 그리고 이 組織은 環境속에서 相互作用的 기능을 수행하는 하부구조 내지 下部體制를 갖는 유기체적인 것으로 그 집단의 目標達成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문제를 政治化시키는 傳達體系를 유지해 나간다.

이외 최근의 집단행동권 學生들의 動員(mobilization)과 傳達(communication) 體系的 특징적 양상변화는 다음과 같다.

즉 첫째, 活動과 命令體制가 官僚組織化되어 動員과 意思傳達이 計劃的이고 신속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의 직무가 주어지면 미리 마련된 S.O.P에 따라 多數의 大學이 순서대로 참가해 나간다는 것이다.

둘째, 新入構成員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大學의 新入生에 대한 動員 및 傳達體系를 우편·전화로 내용을 傳達하거나 선배나 상급생이라는 명목으로 호별방문을 하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설득시켜 나가는 새로운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사자인 학생뿐 아니라 學父母에게 양해를 구하여 확실한 結束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學校와 警察에 대한 마타도어手法과 겨울camp 活動이다. 集團行動圈學生들은 리더의 보호와 行動의 지속을 위하여 선의의 희생자를 만들 뿐 아니라 大學의 合格者 중 警察의 과격행동이나 學校當局의 교문폐쇄 등의 조치에 反感을 갖도록 하는 겨울 Camp 集團行動을 전개함으로써 이들의 인식변화의 첫 계기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어떤 活動 및 集團行動에서는 그 目標達成을 위하여는 構成員을 어떻게 하나의 힘으로 動員하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의사전달체계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중요한 관건인데 學生들의 경우 특이한 양상으로 發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集團行動의 組織化와 下部構造

集團行動을 動態的 過程에서 考察할 때 組織化는 그 集團行動이 추구하는 目標達成의 核心的 과제가 될 뿐 아니라 이 集團行動의 公式·非公式의 目標가 社會의 基本的 規範을 벗어날 때 조직화의 여부는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와같은 의미의 組織을 C. Barnard는 어떤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사람 이상의 힘과 活動을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協同體系로 보았다. 그리고 이 組織은 環境속에서 相互作用的 기능을 수행하는 하부구조 내지 下部體制를 갖는 유기체적인 것으로 그 집단의 目標達成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런 論理에 따라 最近의 學生集團行動도 이 組織化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學生들의 주장을 効率的으로 達成하려는 현상을 볼 수 있다.

歴史的으로는 55年の 敵性休戰監視委, 64年の 對日굴욕외교 反對鬪委, 74年の 民青學聯 등의 組織化가 있긴 하였으나 이것은 하나의 結成 및 集合의 의미의 名稱이었으며 80년대 특히 85년도의 學生集團은 下部構造가 동시에 갖추어지는 完전한 組織化의 과정과 구조를 갖추므로써 役割機能의 配分 및 權限責任이 부여되는 非公認公式組織을 갖춘 것이 특징적이다. 이들 非公認公式組織의 結成・結束要因은 전술한 部分的 分析에서 보았듯이 서클중심, 問題學生, 기독교, 4학년, 남학생지향적이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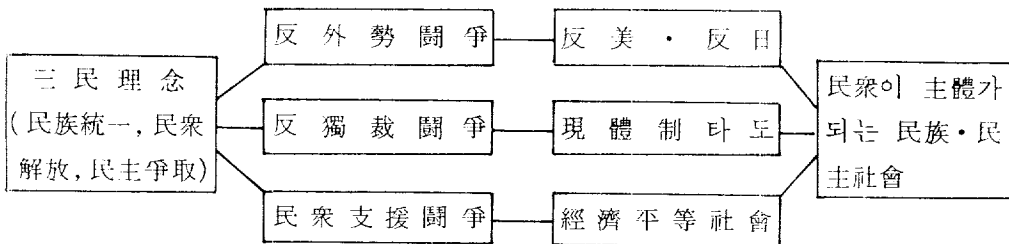
이들 要因을 다시 配列하면 구성원은 非正常 신분자, 기독교, 男女學生(최근 여학생 power 급증)들이지만 集團行動의 母體는 서클에서 출발함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문교부가 밝힌 學園自律化 이후의 在京 24개 大學의 서클分析에 의하면 문제서클이 모두 130個에 4,230名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 숫자에는 全學聯과 三民鬪委를 제외한 것으로 현재 全學聯은 42개 大學에서, 三民鬪委는 32個 大學에서 構成되어 活動中이라고 보고 문제서클로 分類된 이 서클이 주로 學内外의 이슈를 거론하여 示威로 발전시키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 學生集團行動의 組織 중 全學聯과 三民鬪의 組織化 과정과 그 下部構造를 보면 다음과 같다.

全學聯(全國學生總聯合)은 서울과 지방의 大學聯合組織體이다. 지난 85. 4월 全國 23個 대학대표가 참석, 창립 결성한 이 組織體는 각 大學의 地域的 특수성이 있는 운동역량을 全國적으로 결집하여 統一性を 확보하고 광범한 연계를 형성하여 他 운동권 및 민중세력과 効率的인 對政府鬪爭을 하는데 그 目標을 두고 있다. 이 全學聯의 산하 下位組織으로 의장밑에 4名의 副議長 및 中央執行委員會(선진국, 사무국)를 두고 그 밑에는 각 大學 總學生會內에 構成되어 있는 三民鬪委(民族統一, 民主爭取, 民衆解放鬪爭委員會)와 각 지역평의회가 中央執行委員會下에 두어져 있고 지역평의회는 서울, 중부, 호남, 영남의 4지구로, 그리고 東·西·南·北部 地區로 다시 細部組織(sub-sub-system)化되어 있다.

한편 三民鬪委는 全學聯의 下部構造(sub-structure)로서 실천적이고 선도적인 투쟁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즉 각 大學의 三民鬪委는 全學聯이나 各大學總學生會가 大衆組織이라는 속성 때문에 선도적 투쟁을 전개할 수 없다는 데 판단의

기초를 두고 三民(民族·民主·民衆)의 三大理念을 실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선도적 투쟁 및 선전, 선동활동의 투쟁조직이다. 이 三民闘委會는 全學聯의 task-force로서 全國 34(32個) 大學 56個 단체, 서울 시내 34大學 중 19個 大學에 38개 단체가 形成되어 있으며 이들의 行動은 그들의 目標과 다음과 같은 도식에 따른다.



이와같이 目標과 行動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면서 구성되어 있는 三民闘委會는 그 밑에 sub-system으로서 反外勢民族守護鬭委會·民衆權益爭取委·光州事態鬭爭委會를 두고 있으며, 이 光州事態鬭爭委會는 美文化院 짐거농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光州事態鬭爭委會와 관련된 學生團體로는 광주학살원흉처단위원회, 광주항쟁계승특별위원회, 광주학살진상규명위원회 등이 각 大學에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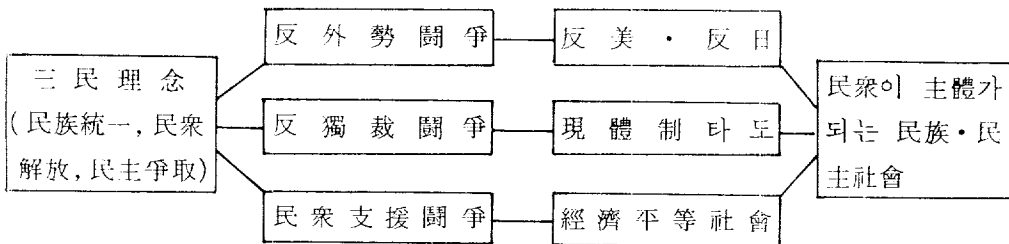
이상에서 본 바 學生集團行動組織化의 특징은 公認公式 組織인 總學生會가 非公認公式 組織으로 체제와 기능이 轉換되어 總學生會의 公式目標과 實質目標가 상충, 왜곡되어 非正常化되고 있다는 것과 全學聯의 sub-system들이 公式組織의 것과 유사한 완벽성을 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鬭爭行動의 手段

學生集團行動의 目標達成을 위한 代案의 選擇過程에서 그 구체적인 行動戰略과 그때 動員되는 手段은 集團行動의 目標達成의 주요관건이 된다.

그러므로 學生運動으로 分類된 日帝下의 3·1운동 이후 6·10 만세운동까지는 非組織的 性格의 盟休가 주요 전략이요 手段이었으나, 1929년의 6·10만세운동을 효시로 計略的·組織的 學生運動이 政治·文化·社會運動의 性格으로 일어났다. 그후 2共和國下의 非結社的 團體(nonassociational-group)의 性格으로

기초를 두고 三民(民族·民主·民衆)의 三大理念을 실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선도적 투쟁 및 선전, 선동활동의 투쟁조직이다. 이 三民闘委會는 全學聯의 task-force로서 全國 34(32個) 大學 56個 단체, 서울 시내 34大學 중 19個 大學에 38개 단체가 形成되어 있으며 이들의 行動은 그들의 目標과 다음과 같은 도식에 따른다.



이와같이 目標과 行動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면서 구성되어 있는 三民闘委會는 그 밑에 sub-system으로서 反外勢民族守護鬭委會·民衆權益爭取委·光州事態鬭爭委를 두고 있으며, 이 光州事態鬭爭委는 美文化院 짐거농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光州事態鬭爭委와 관련된 學生團體로는 광주학살원흉처단위원회, 광주항쟁계승특별위원회, 광주학살진상규명위원회 등이 각 大學에 설치되어 있다.

이상에서 본 바 學生集團行動組織化의 특징은 公認公式 組織인 總學生會가 非公認公式 組織으로 체제와 기능이 轉換되어 總學生會의 公式目標과 實質目標가 상충, 왜곡되어 非正常化되고 있다는 것과 全學聯의 sub-system들이 公式組織의 것과 유사한 완벽성을 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鬭爭行動의 手段

學生集團行動의 目標達成을 위한 代案의 選擇過程에서 그 구체적인 行動戰略과 그때 動員되는 手段은 集團行動의 目標達成의 주요관건이 된다.

그러므로 學生運動으로 分類된 日帝下의 3·1운동 이후 6·10 만세운동까지는 非組織的 性格의 盟休가 주요 전략이요 手段이었으나, 1929년의 6·10만세운동을 효시로 計略的·組織的 學生運動이 政治·文化·社會運動의 性格으로 일어났다. 그후 2共和國下의 非結社的 團體(nonassociational-group)의 性格으로

4·19혁명을 성공시켰으며 이때부터 학생대모는 盟休가 돌투척·동료거부·폭력난동화하는 양상으로 변모해 갔다. 이는 3共和國下의 60년대 세계적인 S.P(Student Power) 운동세력 影響으로 67년 6~7月の 서울대 6·8 不正選舉규탄에서는 시험거부, 투석전, 최류탄이 사용됐으며 처음으로 햇불데모에 솜뭉치 등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후 4共和國에 접어들면서 74년에는 民靑聯이 組織되면서 全大學聯合 및 社會運動과의 연계행동이 시도되었고, 본격적인 연계전략과 放火, 화염병 등의 과격행동이 시작된 것은 80년대의 새로운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지난 80년 12.9의 光州美文化院放火事件, 82년 3.28의 釜山美文化院放火事件, 83년 9.22의 大邱美文化院 폭발물사건, 83년 11.20의 光州美文化院 화염병 투척사건 등이 주요 대표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들 도표에서 연대별로 보면 <表3-1>과 같다.

<表1> 學生集團行動의 年代記(chronology)의 특징

年代區分	主 要 事 件 名	行 動 戰 略 特 징	行 動 양상특징
1 期 日帝下(1910 ~19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東京留學生 2·8 宣言 • 6·10 만세운동 • 光州學生운동 	非組織 운동 計略的·組織的 "	
2 期 1.2共和國 (1948~ 19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敵性休戰監示委 축출 • 在日교포北送反對 • 서울文理師大재 단퇴진 (60.10) 	全國大學시위 全國大學生 단식투쟁 동지회 집단시위	데모 및 메시지 (55.8) 단식투쟁 (59.12) 暴力난동
3 期 3 共和國 (1963~ 19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속학생석방운동 (60.11) • 韓·日會談反對 • 6.8 부정선거규탄 (67.6.7) • 三選改憲反對 • 교련反對 	"	돌 투척 시험거부, 투석전, 최류탄, 햇불데모 솜뭉치 사용
4 期 4 共和國 (1972~ 19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靑學聯사건 (74.) • 光化門데모사건 (79.6) • 釜·馬사태 (79.) 	全大學聯合 및 社會운동과 의 연계 在野社會운동과 연계	大學起峰의 기폭 "

年代區分	主要事件名	行動戰略특징	행동양상특징
5期 5共和國 (1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光州美文化院放火(80.12) • 學林사건(81.6) • study클럽사건(81.3) • 農村問題研究會事件(83.1) • 民正黨舍亂入(84.11) • 부산美文化院放火(82.3) • 광주美文化院화염병투척(82.11) • 大邱美文化院폭발물사건(83.9) • 서울美文化院점거사건(85.5) • 民正黨연수원점거사건(85.11) • 光州美文化院점거사건(85.12) • 建大점점농성사건(86.10.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全國民主學生聯盟 理念서클조직 농민의식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放 火 買辦자본주의이데올로기 暴力에 의한 政權타도 의식화수련 暴 力 放 火 “ 暴 力 “ “ 파괴, 방화

<表3-1>의 年代記的 흐름에서 본 바와 같이 80년대 이후의 集團行動樣相 및 戰略의 특징은 暴力化, 連繫化, 理念化라고 규정할 수 있다. 우선 수단면에서의 暴力化의 양상으로 ① 경찰장비 및 공용 영조물의 放火, ② 공공건물의 기습적 占據, ③ 기관원 人質 및 경찰장비의 탈취, ④ 화염병·햇불 등 제조 투척, ⑤ 투석 ⑥ 작목, 쇠파이프, 폭탄 등 위험물 소지 ⑦ 落下自害 ⑧ 불온유인물 제작 살포 ⑨ 분신자살 등을 들 수 있다. 放火의 대표적 사건으로는 85.4.12 을지로 6가 등에서 서울大生 1,900여명이 경찰순찰차에 화염병 투척한 것을 비롯 용곡동 6가 파출소에 투석하여 유리창 125장 파손한 것 등과 82년 부산美文化院, 85.11의 民正黨연수원 放火事件 등이며, 暴力的인 것으로서는 85.4.19 전남 대생 650여명이 경찰장비를 탈취 공무집행을 放害한 것 등이 있다. 그리고 공공건물 등의 占據농성으로는 85.5.23의 서울美文化院占據, 85.6.1의 新民黨中央黨舍점거, 85.11의 民正黨研修院 점거와 85.12 光州美文化院 점거농성 86.10.28의 建

大事件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중 85년 11월의 民主黨연수원 점거방화사건은 全學聯산하의 문제권 核心간부들이 치밀한 사전음모로 돌과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관입석유와 화염병으로 放火함으로써 가장 暴力性이 두드러진 도시 게릴라의 양상을 띄고 있다.

다음으로 체계면에서 연계화의 양상으로는 學勞連繫와 宗教 및 在野連繫鬭爭이 본격화된 점이다.

최근의 勞動爭議集團行動은 운동권 출신 學生들의 위장취업에 의해서 조종되면서 좌경적 폭력투쟁의 색채를 띠면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勞動연합세력은 비조합원들에게 노조가입을 강요하다 비조합원들과 충돌하거나 勞總 및 노동부의 사무실점거농성, 해고운동권 학생의 복직요구 등과 노조탄압사례발표, 근로자 죽음 애도, 노동악법 철폐 등 政治的 集會의 성격을 띤 勞動運動을 연계적으로 전개한다.

최근 三民黨의 행동강령인 暴力革命的 論理에 따라 三民의 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 노동운동, 영세상인, 도시빈민운동, 농민운동, 지식인문화운동을 축진시킬 戰略으로 行動目標을 설정하고 이 중 勞動運動을 가장 核心的 要素로 보고 있으며 이의 社內유인물 배분, 종교단체 등과의 연계도 본격화한다. 學生들의 勞動問題 介入은 70년대의 전태일 사건을 계기로 學生들의 勞動問題에 대한 관심과 介入이 增大되면서 70년대의 高度成長에서 파생된 빈부의 격차 등이 이슈로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70년대 후반의 일부학생의 지하이념서를 가입과 좌경서적 탐독, 勞動問題의 심층학습, 토론 등으로 勞動問題에 目標와 理論이 정립되면서 더욱 확대되어 80년대의 근로자 의식화를 勞動現場에 침투, 실시함으로써 대구 택시운전사집단행동, 청계피복노조합법성 쟁취대회를 통해 위장취업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분계종교단체의 學生·勤勞者 연계가 강화되었다.

이의 言論·在野와의 연계전략으로 85.4.30 全學聯共同記者會見, 85.5.24 言論의 정당한 보도요구를 하는 在野人士(民推協 및 民靑聯)와의 공동기자회견을 비롯 외부단체인사와의 연계를 위한 85.5.10의 서울대 광장에서 광주항쟁 진상규명 대회시 學生과 市民參與 촉구, 85.6.7의 在野人士 초청토론 등은 이의 대표적 예들이다. 그리고 農民意識化活動(農活이라 약칭함)을 통해 농민들에게 혁명투사로서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參與學生間的 연대감을 강화하는 동시 農民과 學生間的 연계를 꾀하고 있다.

끝으로 思想面에서 意識化의 특징적 戰略으로 삼고 있는 그 代表的 理論과 투쟁방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意識化의 戰略은 集團을 강하게 凝集시키는 방법으로 서클 活動을 매력적으로 運用하는 한편 理念書籍을 양서로 규정하고 이를 읽고 비판 考察으로써 意識의 自發的 變化를 일으켜 最終活動에 옮겨지는 등 글자 그대로 ‘集團’과 ‘行動’ 개념에 충실한 기본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때 韓國의 現實과 社會改革을 유추비교하고 유물변증법적으로 비판력과 불순의식을 고취시키는 書籍中 ‘네오막시즘’ ‘從屬理論’ ‘解放과 民衆神學’ 등이 있는데 이 중 從屬理論은 20년 전부터 政治學者들 사이에 說明도구로 도입된 理論이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學生들의 鬪爭手段으로 쓰이고 있다.

이는 원래 학술용어로서 ‘dependence theory’, ‘dependency theory’로 번역될 수 있는 것으로 전자는 靜態的 從屬의 뜻으로 다른 말로 바꾸면 극도로 不均衡한 相互依存性을 가리킨다. 예컨대 A國은 B國에 아무것도 必要로 하지 않는데 B國은 自身の 必要에 의해 A國에게 從屬되어 있는 관계를 말함으로써 이의 반대개념은 interdependence (相互依存)이다. 이에 반해 dependency는 autonomy (自律) 혹은 independence (獨立)의 반대말로서 自律이 결여된 상태를 말하는 데 이때 dependency의 구성요소는 생산요소(資本과 技術)와 제한된 發展代案의 해외 의존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후자쪽에 가까운 것으로 dependency理論이다. 원래 이 從屬理論의 진원지는 2가지로 하나는 UN의 라틴아메리카 經濟委員會(ECLA)에서 비롯된 構成主義的 觀點과 다른 하나는 마르크스, 레닌主義的 觀點이다.

마르크스·레닌主義的 觀點에서 본 從屬理論은 ECLA가 제시한 라틴아메리카의 성장모델이 바로 이 지역의 低發展을 적절히 說明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동기였던 것으로 최근 從屬理論家들은 中心國(産業化한 先進國家)과 周邊國(非産業化國家)의 중간에 中間國群을 따로 두고 新生工業國(NISC)을 여기에 包含시키고 있다. 최근 서울대 社會科學硏所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방문 토론회를 가진 從屬理論學者 세네갈 다카르대 교수 사마르 아민은 주변국이 중심국으로 진입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등 신흥공업국은 中南美 國家의 現象 說明도구인 從屬理論의 限界를 제시했다. 따라서 狀況이나 實情 및 可能性의 正確한 진단이나 분석없이 맹목적으로 어떤 理論을 적용함은 理論에 의한 行動을 劃一化, 極度の 對立化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意識化된 集團의 鬭爭方式은 대체로 3 단계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첫단계는 民衆解放鬭爭으로 민중정권을 수립하고 2 단계로 社會主義革命을 거쳐 最終的 段階에서 共黨主義革命을 성취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제 1 단계 民衆解放鬭爭으로 민중정권 수립: 의식화된 노동운동가 포섭→전국 각 사업장에 위장침투→사회혼란 조성→결정적 시기에 조직근로자의 주도로 지식인, 학생, 시민의 민중봉기에 의하여 파쇼집단을 붕괴시킨다.

② 제 2 단계 社會主義革命

반파쇼 鬭爭 성공으로 파쇼가 무릎을 꿇게 되면 노동자계층의 주도하에 진보적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

③ 제 3 단계 북괴의 남침통일과 공산주의 革命

- 反帝國主義의 鬭爭전개시 美寇이 개입하고 북괴가 남침하여 판도변화를 초래한다.
- 美寇・寇內支配集團(파쇼정권, 자본가, 군부)과 초기 단계의 政治鬭爭 가담세력인 중산층, 종교인, 지식인, 학생들이 敵이 되고
- 노동자, 빈농, 하급군인, 극소수 革命的 인텔리겐차만이 북한에 동조 전쟁 가담
- 북괴와 연합하여 反獨裁鬭爭 성공시 社會主義 統一國家를 성취한다.

以上の 段階別 鬭爭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1 단계 초기양상을 발견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民衆'을 三民理念에서 제외 鬭爭核心을 가장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5. 集團行動의 規範

集團行動의 規範이란 集團 및 組織과 그의 構成員間的 關係를 服從關係에서 권력과 관여의 두 概念으로 把握한 것으로 일종의 構成員에 대한 압력이다.

일반적으로 이와같은 의미의 規範에는 組織이나 집단이 個人에 대하여 強制的 힘에 의해 服從關係를 確保하는 強制權 權威와 個人의 行動結果에 따른 報償으로서의 同 關係를 유지하는 報償的 權威, 그리고 조직이 어떤 Symbol의 조작으로서 個人으로 하여금 獻身토록 하여 一體感을 형성하는 規範的 權威가 있는데 학생들의 集團行動團體에 대한 規範에는 상기의 3가지 要因이 가변적으로 적용

유도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意識化된 集團의 鬭爭方式은 대체로 3 단계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첫단계는 民衆解放鬭爭으로 민중정권을 수립하고 2 단계로 社會主義革命을 거쳐 最終的 段階에서 共黨主義革命을 성취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제 1 단계 民衆解放鬭爭으로 민중정권 수립: 의식화된 노동운동가 포섭→전국 각 사업장에 위장침투→사회혼란 조성→결정적 시기에 조직근로자의 주도로 지식인, 학생, 시민의 민중봉기에 의하여 파쇼집단을 붕괴시킨다.

② 제 2 단계 社會主義革命

반파쇼 鬭爭 성공으로 파쇼가 무릎을 꿇게 되면 노동자계층의 주도하에 진보적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

③ 제 3 단계 북괴의 남침통일과 공산주의 革命

- 反帝國主義의 鬭爭전개시 美寇이 개입하고 북괴가 남침하여 판도변화를 초래한다.
- 美寇・寇內支配集團(파쇼정권, 자본가, 군부)과 초기 단계의 政治鬭爭 가담세력인 중산층, 종교인, 지식인, 학생들이 敵이 되고
- 노동자, 빈농, 하급군인, 극소수 革命的 인텔리겐차만이 북한에 동조 전쟁 가담
- 북괴와 연합하여 反獨裁鬭爭 성공시 社會主義 統一國家를 성취한다.

以上の 段階別 鬭爭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1 단계 초기양상을 발견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民衆'을 三民理念에서 제외 鬭爭核心을 가장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5. 集團行動의 規範

集團行動의 規範이란 集團 및 組織과 그의 構成員間的 關係를 服從關係에서 권력과 관여의 두 概念으로 把握한 것으로 일종의 構成員에 대한 압력이다.

일반적으로 이와같은 의미의 規範에는 組織이나 집단이 個人에 대하여 強制的 힘에 의해 服從關係를 確保하는 強制權 權威와 個人의 行動結果에 따른 報償으로서의 同 關係를 유지하는 報償的 權威, 그리고 조직이 어떤 Symbol의 조작으로서 個人으로 하여금 獻身토록 하여 一體感을 형성하는 規範的 權威가 있는데 학생들의 集團行動團體에 대한 規範에는 상기의 3가지 要因이 가변적으로 적용

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日帝下의 學生運動이 愛國愛族의 Symbol에 의한 行動統一이었음을 미하여 바로 이 80년대 이후의 사건중 민정당연수원 점거 및 放火時에는 기망 및 強壓的 要因에 의한 多數學生의 動員方法을 택했는가 하면 三民闘委會 의한 美文化院占據농성 事件時에는 三民에 의한 民衆政權의 수립만이 民族統一, '民主爭取', '民衆解放'의 걸림을 제시하고 이를 폭동, 혁명, 외세배척에 의해 達成可能한 것으로 行動員들에게 주지시킨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이 目的達成 후의 個人的 報償도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강제, 보상, Symbol 이 동시에 學生들의 行動을 可能케 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elite 概念 및 leader 의 概念을 왜곡시킴으로써 前衛的 역할을 맡게 한 것이다.

6. 集團行動의 環境的 要因과 系統

開放經濟·開放體制下에서는 學生들의 集團行動의 原因이 되는 促發動因은 內的 要因으로는 80년대 이후 理想化的 뚜렷한 양상을 들 수 있으나 이의 學生行動의 명분이나 구실을 준 外的 環境的 要因도 특이함을 發見할 수 있다. 첫째, 個人的 要因(個體變數)으로는 利益集團의 行動을 전개하면서 극도의 個人主義的인 立身의 경력화를 하려는데 있다. 특히 85.2.12.총선 때에 학생운동 영웅들이 4.19 세대를 비롯 6.3 세대 反維新세대로 이어지면서 社會議員 당선의 誠民的 支持를 받았다는 것과 그의 선배들의 官職 및 기타 특수직에의 特探 등은 集團行動 運動圈內에서는 바람직한 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學校成績 不良으로 경고·제적의 제재적 위기상황에서 심리적 갈등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反對로 이들 集團行動 加擔者들에 대한 특별우대조치로 장학금수여, 단체여행 및 시찰을 호의적으로 취해왔던 사례들은 후배들에게 가치판단의 혼란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환경요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集團行動의 概念 및 行動범주의 내포나 외연의 無定見을 제시하고 받은 社會·學校와 學生個人은 學生들의 集團行動에서 오는 효용 및 利益과 正常의 行動과 노력에서 얻게 되는 가치와의 사이에서 그 가치비교 및 판단을 犯罪經濟的 行動化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 이념적·利益的·심리적·엘리트·역사적 要因들이 동시에 작용한 예라고 볼 수 있다.

둘째, 學校 教育的 要因(教育變數)으로는 前衛한 바와 같이 集團行動學生의 身分 中 제적·휴학·문제학생·경고 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日帝下의 學生運動이 愛國愛族의 Symbol에 의한 行動統一이었음을 미하여 바로 이 80년대 이후의 사건중 민정당연수원 점거 및 放火時에는 기망 및 強壓的 要因에 의한 多數學生의 動員方法을 택했는가 하면 三民闘委會 의한 美文化院占據농성 事件時에는 三民에 의한 民衆政權의 수립만이 民族統一, '民主爭取', '民衆解放'의 걸림을 제시하고 이를 폭동, 혁명, 외세배척에 의해 達成可能한 것으로 行動員들에게 주지시킨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이 目的達成 후의 個人的 報償도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강제, 보상, Symbol 이 동시에 學生들의 行動을 可能케 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elite 概念 및 leader 의 概念을 왜곡시킴으로써 前衛的 역할을 맡게 한 것이다.

6. 集團行動의 環境的 要因과 系統

開放經濟·開放體制下에서는 學生들의 集團行動의 原因이 되는 促發動因은 內的 要因으로는 80년대 이후 理想化的 뚜렷한 양상을 들 수 있으나 이의 學生行動의 명분이나 구실을 준 外的 環境的 要因도 특이함을 發見할 수 있다. 첫째, 個人的 要因(個體變數)으로는 利益集團의 行動을 전개하면서 극도의 個人主義的인 立身의 경력화를 하려는데 있다. 특히 85.2.12.총선 때에 학생운동 영웅들이 4.19 세대를 비롯 6.3 세대 反維新세대로 이어지면서 國會議員 당선의 誠民的 支持를 받았다는 것과 그의 선배들의 관직 및 기타 특수직에의 特探 등은 集團行動 運動圈內에서는 바람직한 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學校成績 不良으로 경고·제적의 제재적 위기상황에서 심리적 갈등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反對로 이들 集團行動 加擔者들에 대한 특별우대조치로 장학금수여, 단체여행 및 시찰을 호의적으로 취해왔던 사례들은 후배들에게 가치판단의 혼란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환경요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集團行動의 概念 및 行動범주의 내포나 외연의 無定見을 제시하고 받은 社會·學校와 學生個人은 學生들의 集團行動에서 오는 효용 및 利益과 正常의 行動과 노력에서 얻게 되는 가치와의 사이에서 그 가치비교 및 판단을 犯罪經濟的 行動化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 이념적·利益的·심리적·엘리트·역사적 要因들이 동시에 작용한 예라고 볼 수 있다.

둘째, 學校 教育的 要因(教育變數)으로는 前衛한 바와 같이 集團行動學生의 身分 中 제적·휴학·문제학생·경고 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상적인 學校生活에서의 일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내외의 示威 등 集團行動의 潛在資源이 增加된다고는 볼 수 있는 要因의 變수양상이다. 서울大의 경우 81.2학기 휴학생이 1,838명, 1학기 휴학생이 1,727명으로 모두 3천5백 65명이 휴학생으로 전체 25,352명 중 15%에 해당되는 것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이 원인은 주로 成績不良에 의한 學士除名, 학원사태관련징계 등이 있으나 자칫 集團行動에 가담할 수 있는 個人的 要因化 및 중요한 變數가 된다고 하겠다. 또한 여기에 除績者의 再入學이 허용되어(83.12.21) 84년의 729명과 85년의 80명의 學生集團도 直接·間接的인 影響變數가 됨을 부인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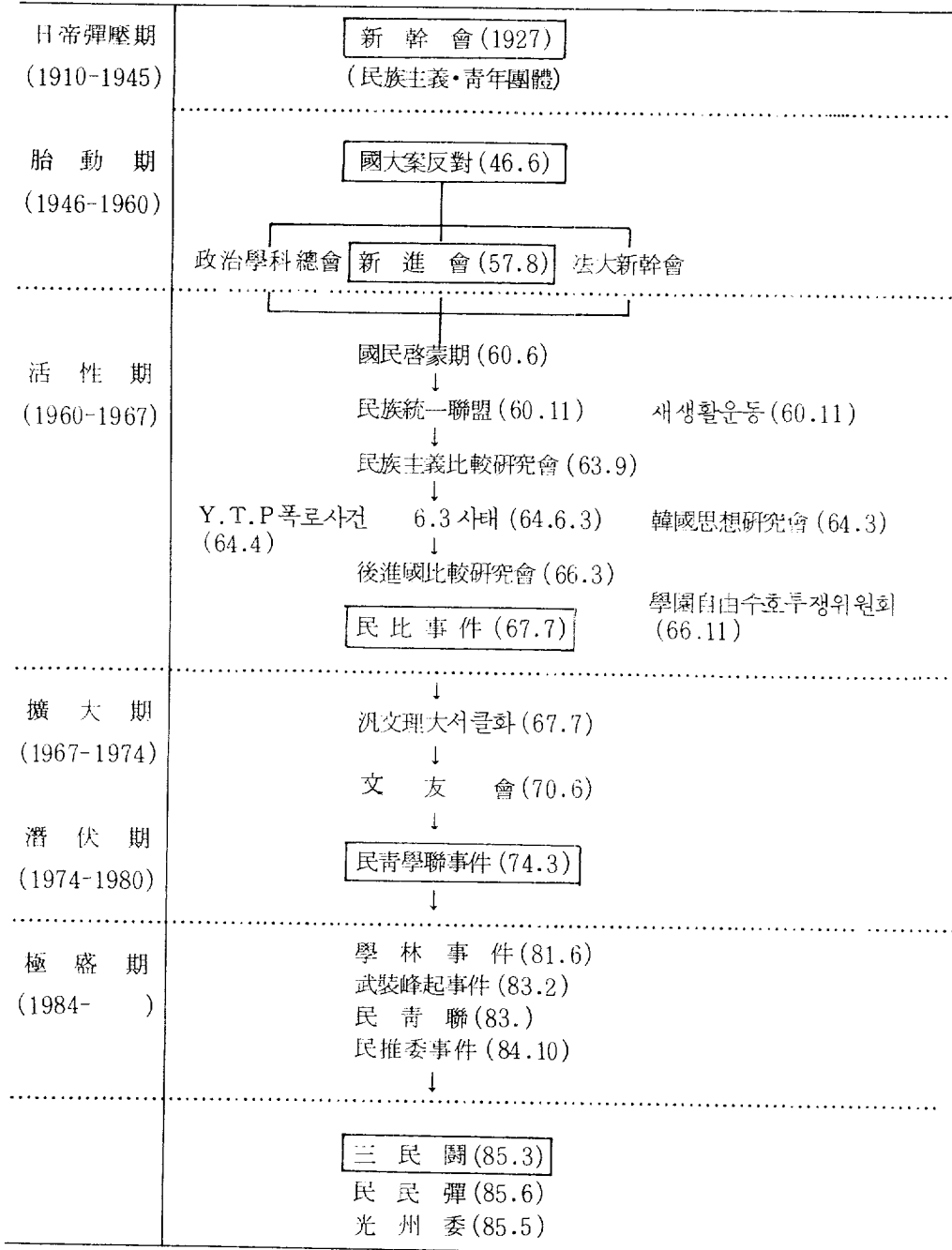
세째, 社會的 要因(社會經濟的 變數)으로 85.3의 木洞撤去民間問題發生, 85.4~5月の 野黨委員의 大學訪問, 대우어패럴 등 勞使問題發生(85.5.6) 就業의 저조 및 불확실 등이 이슈를 촉발하는 要因으로 作用했으며, 85.1학기의 總學生會 구성 5原則의 大學別 시달을 正面충돌의 원인이 되었고, 光州事態의 진상규명 요구는 지속적으로 대학가의 흥분요소가 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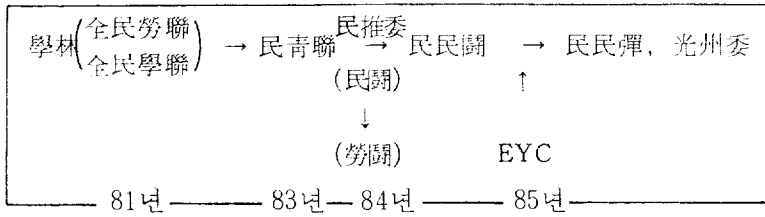
여기에 85.5.23 三民闘委 中心의 73명의 學生이 美文化院 2層 도서실을 不法占據함에 따라 美대사와의 學生代表 公式面談시사와 그 후의 서울大 訪問에 의한 學生面談도 하나의 外部的 要因으로 學生集團行動을 加熱시킨 要因들이라 분석할 수 있다.

끝으로 85년의 事件 중 關心을 갖게 하는 三民闘委에 의한 集團行動의 背後勢力의 不斷한 傳承과 連繫이다.

즉, 全學聯산하의 三民闘委는 CDR(Civil Democratic Revolution), NDR(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 PDR(Reople Democratic Revoltion)의 主唱團體인 民靑聯 간부와 기독교청년협의회(EYC)간부들과 접촉, 이 자리에서 民民彈(민중민주화운동 彈壓 공동대책위원회) 구성문제를 논의함으로써 三民闘委의 힘만으로는 學園彈壓에 대처는 물론 國民의 지지도 받기 어려우므로, 社會宗教團體와 共同對處기로 한 것이며, 이 관련단체 중 民靑聯 간부들은 84.8~10월 '民推委'를 결성 社會主義 건설을 궁극목표로 하였으며, 이 모의과정에서 同調勢力糾合의 理念教材로 제작 배포한 것이 깃발 I, II號이다. 그리고 이들이 三民闘와 民民彈組織을 배후조종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85년의 最大行動集團으로 사건을 주도한 三民闘委는 이와같이 연계되며 이는 더 原初的 段階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以上の 系統圖와 같이 맥락을 이어오고 있다.(서울大 중심서클 및 행동체계)

〈表2〉 서클中心의 主要學生集團行動 事件의 系統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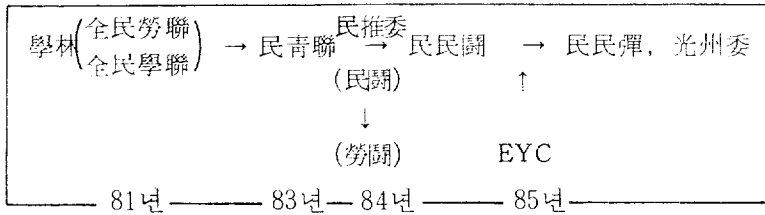


7. 마스크 및 個人媒體에 의한 擴散과 傳達

社會現象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인지하거나 실행을 경험적으로 터득한다는 것은 새로운 情報에 의하여 行動에 變化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는 다시 個人 또는 集團 및 다른 채택·수용단위에 의하여 구체적인 의사소통이 채널을 통하여 시간을 두고 수용되며 그 受容者의 수가 擴大되어 가는 것을 (diffusion)이라고 보고 이때 媒體(media)는 한 채택단위로부터 다른 채택단위로 정보가 전달되는 수단이며 이는 個人으로 하여금 새로운 方向으로 태도가 변화되도록 지식을 전달하고 설득한다. 情報의 受容 후 새로운 態度의 決定過程에서 마스크(大衆媒體)은 知識次元에서 중요하며 對人媒體는 說得次元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수용 및 이로 인한 결정의 蓋然性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通信媒體를 大衆媒體에서 對人媒體로 代替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따라서 學生集團行動에 동조하려는 결심을 하는 단계에서 T.V, 신문, radio 등의 大衆媒體는 상황의 새로운 양상이나 지식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반해 행동에의 적극적 참가 및 實行에 대한 誘發과 태도의 돌변에는 對人媒體가 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반대로 行動에의 참가뿐 아니라 해산에도 그만큼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對人媒體에 의한 communication은 集團內라는 의미와 전술한 學生主動勞力과 기타 一般學生의 접촉에 의한 설득회유라는 의미에서 集團內生變數에서 說明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外生變數로서 마스크에 의한 접촉과 영향이 이들 행동양상에 변화를 크게 줄 것이라고 보고 이를 고려하기로 한다.

Rogers의 情報擴散 및 전파를 說明하는 변수 통신매체의 성격과 유사하게 J.F. Engel도 Rogors의 擴散變數를 원용하여 communication 관련변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對外的 성향, mass media 노출도, 변동 역군과의 접촉도, 규범으로



7. 마스크 및 個人媒體에 의한 擴散과 傳達

社會現象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인지하거나 실행을 경험적으로 터득한다는 것은 새로운 情報에 의하여 行動에 變化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는 다시 個人 또는 集團 및 다른 채택·수용단위에 의하여 구체적인 의사소통이 채널을 통하여 시간을 두고 수용되며 그 受容者의 수가 擴大되어 가는 것을 (diffusion)이라고 보고 이때 媒體(media)는 한 채택단위로부터 다른 채택단위로 정보가 전달되는 수단이며 이는 個人으로 하여금 새로운 方向으로 태도가 변화되도록 지식을 전달하고 설득한다. 情報의 受容 후 새로운 態度의 決定過程에서 마스크(大衆媒體)은 知識次元에서 중요하며 對人媒體는 說得次元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수용 및 이로 인한 결정의 蓋然性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通信媒體를 大衆媒體에서 對人媒體로 代替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따라서 學生集團行動에 동조하려는 결심을 하는 단계에서 T.V, 신문, radio 등의 大衆媒體는 상황의 새로운 양상이나 지식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반해 행동에의 적극적 참가 및 實行에 대한 誘發과 태도의 돌변에는 對人媒體가 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반대로 行動에의 참가뿐 아니라 해산에도 그만큼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對人媒體에 의한 communication은 集團內라는 의미와 전술한 學生主動勞力과 기타 一般學生의 접촉에 의한 설득회유라는 의미에서 集團內生變數에서 說明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外生變數로서 마스크에 의한 접촉과 영향이 이들 행동양상에 변화를 크게 줄 것이라고 보고 이를 고려하기로 한다.

Rogers의 情報擴散 및 전파를 說明하는 변수 통신매체의 성격과 유사하게 J.F.Engel도 Rogors의 擴散變數를 원용하여 communication 관련변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對外的 성향, mass media 노출도, 변동 역군과의 접촉도, 규범으로

부터의 이탈도, 集團參與度, 對人媒體의 노출도, 여론지도성 등이 그의 분류범주이다.

이상과 같이 볼 때 學生集團行動의 傳播 및 擴散的 收容體系가 大衆媒體가 전달 및 전파(보급)에, 個人媒體가 擴散 및 收容에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볼 때 學生의 集團行動은 大衆媒體도 그 영향이 크지만 個人媒體 즉 서클, 學級級友, 하숙 및 자취동료, 地域 등의 peer group (동료집단)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고 또 중요변수로 고려되어야 한다.

8. 政策變數에 의한 刺戟

組織이나 集團의 構造, 技術 등은 주요한 內生變數로서 集團의 活動 및 結果에 영향을 미치나 社會와 政府의 規制 및 政策決定의 體制 등은 學生集團行動에서 주요한 環境變數로서 活動의 양상이나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變數이다.

이에는 大學의 학사운영에 관한 일체의 제도나 법령이 이에 해당되며 文敎部의 教育政策 및 제도와 治安政策의 學園介入에 관한 것 등이 직접·연관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외에 政治·經濟·社會에 관한 政策變數들이 前述한 쟁점 및 目標변화에 영향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중 특히 大學의 學事運營에 관한 제도나 법령의 運用에 있어서 教授陣(faculty group)에 관한 變動役軍으로서의 變數이다. 大學에서의 教授陣에 의한 變動役軍의 役割은 學生들의 行動決定에 결정적인 촉매가 되는 것으로 ① 社會現象에 대한 認識能力, ② 知識의 축적 및 人格의 成長, ③ 集團構成員과의 交際 및 社會化 등에서 그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教育陣의 變動役軍과 관련된 변수로는 教授의 變動役軍으로서의 강의 서비스의 水準, 學生에 대한 관심, 학생들과의 感情交互의 정도, 教授와 學生의 접촉도, 양자의 同質感, 人格함양의 努力정도 등이 學生集團行動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事態의 安定 및 中斷에 核心的인 變數(critical variables)가 될 수 있다.

이 외 대학의 學事運營 중 卒業定員制運用, 成績管理, 報償과 징계의 엄격한 교환적 처리, 학생복지 및 연구시설 등의 確保 등이 大學의 運營과 관련되는 변수들이며, 문교부의 大學政策에 관한 變更이나 不合理 등이 學園事態의 直·間接의 原因이 되어 왔음을 이슈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學園安定法構想, 大學定員膨脹, 就業不確實 등). 특히 報償 symbol이라 관련하여 正當한 行

부터의 이탈도, 集團參與度, 對人媒體의 노출도, 여론지도성 등이 그의 분류범주이다.

이상과 같이 볼 때 學生集團行動의 傳播 및 擴散的 收容體系가 大衆媒體가 전달 및 전파(보급)에, 個人媒體가 擴散 및 收容에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볼 때 學生의 集團行動은 大衆媒體도 그 영향이 크지만 個人媒體 즉 서클, 學級級友, 하숙 및 자취동료, 地域 등의 peer group (동료집단) 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고 또 중요변수로 고려되어야 한다.

8. 政策變數에 의한 刺戟

組織이나 集團의 構造, 技術 등은 주요한 內生變數로서 集團의 活動 및 結果에 영향을 미치나 社會와 政府의 規制 및 政策決定의 體制 등은 學生集團行動에서 주요한 環境變數로서 活動의 양상이나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變數이다.

이에는 大學의 학사운영에 관한 일체의 제도나 법령이 이에 해당되며 文敎部의 教育政策 및 제도와 治安政策의 學園介入에 관한 것 등이 직접·연관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외에 政治·經濟·社會에 관한 政策變數들이 前述한 쟁점 및 目標변화에 영향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중 특히 大學의 學事運營에 관한 제도나 법령의 運用에 있어서 教授陣(faculty group)에 관한 變動役軍으로서의 變數이다. 大學에서의 教授陣에 의한 變動役軍의 役割은 學生들의 行動決定에 결정적인 촉매가 되는 것으로 ① 社會現象에 대한 認識能力, ② 知識의 축적 및 人格의 成長, ③ 集團構成員과의 交際 및 社會化 등에서 그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教育陣의 變動役軍과 관련된 변수로는 教授의 變動役軍으로서의 강의 서비스의 水準, 學生에 대한 관심, 학생들과의 感情交互의 정도, 教授와 學生의 접촉도, 양자의 同質感, 人格함양의 努力정도 등이 學生集團行動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事態의 安定 및 中斷에 核心的인 變數(critical variables)가 될 수 있다.

이 외 대학의 學事運營 중 卒業定員制運用, 成績管理, 報償과 징계의 엄격한 교환적 처리, 학생복지 및 연구시설 등의 確保 등이 大學의 運營과 관련되는 변수들이며, 문교부의 大學政策에 관한 變更이나 不合理 등이 學園事態의 直·間接의 原因이 되어 왔음을 이슈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學園安定法構想, 大學定員膨脹, 就業不確實 등). 특히 報償 symbol 이라 관련하여 正當한 行

動에 대한 報償 symbol과 위법·부당한 行動에 대한 報償이 지속적이고 공정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政府가 해방이후 몇 번 바뀌면서 위법하다고 司法的 判斷을 구했던 중대한 事件들까지도 政權交替時의 恩典으로 政治的 문제 접근에 의해 해결하였을 뿐 아니라 학원사태 주동자들이 政府관료나 政治의사인 選擧의 당선자로 그리고 문제학생들이 호텔 등의 위안과 향응을 받고 장학금을 수여받는 등의 일관성 없는 상벌의 報償 symbol 교환이 학생들의 가치나 태도결정에 왜곡을 가져오는 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해 왔음도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大學과 치안정책당국자의 變動役軍 간의 役割갈등 등도 문제가 될수 있다. 大學의 責任과 警察의 責任이 인내와 지속성 없이 변함에 따라 學生들에게는 감정의 安定性을 잃게 하거나 이로 인한 감정의 촉발의 원인도 되기 때문에 責任과 역할의 엄격한 定立에 의해 大學의 질서가 확립되어야 함도 그만큼 이 양자간의 변수가 大學問題에 중대한 關鍵이 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IV. 學生集團行動의 趨勢 및 성격변모

1. 集團行動의 爭點 (issues) 變貌

前述한 <表 3-1>에서와 같이 80년대의 우리나라 學生集團行動은 民族的 民衆運動과 多衆的 示威運動(데모) 段階를 벗어난 市民的 民衆運動을 名分으로 한 革命段階의 行動으로 轉換되어 가는 混合的 性格을 띠고 있음을 이슈나 接近方法 및 行動樣式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80년대 이후의 주요 學生集團 行動事件에서 이를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

動에 대한 報償 symbol과 위법·부당한 行動에 대한 報償이 지속적이고 공정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政府가 해방이후 몇 번 바뀌면서 위법하다고 司法的 判斷을 구했던 중대한 事件들까지도 政權交替時의 恩典으로 政治的 문제 접근에 의해 해결하였을 뿐 아니라 학원사태 주동자들이 政府관료나 政治의사인 選擧의 당선자로 그리고 문제학생들이 호텔 등의 위안과 향응을 받고 장학금을 수여받는 등의 일관성 없는 상벌의 報償 symbol 교환이 학생들의 가치나 태도결정에 왜곡을 가져오는 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해 왔음도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大學과 치안정책당국자의 變動役軍 간의 役割갈등 등도 문제가 될수 있다. 大學의 責任과 警察의 責任이 인내와 지속성 없이 변함에 따라 學生들에게는 감정의 安定性을 잃게 하거나 이로 인한 감정의 촉발의 원인도 되기 때문에 責任과 역할의 엄격한 定立에 의해 大學의 질서가 확립되어야 함도 그만큼 이 양자간의 변수가 大學問題에 중대한 觀見이 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IV. 學生集團行動의 趨勢 및 성격변모

1. 集團行動의 爭點 (issues) 變貌

前述한 <表 3-1>에서와 같이 80년대의 우리나라 學生集團行動은 民族的 民衆運動과 多衆的 示威運動(데모) 段階를 벗어난 市民的 民衆運動을 名分으로 한 革命段階의 行動으로 轉換되어 가는 混合的 性格을 띠고 있음을 이슈나 接近方法 및 行動樣式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80년대 이후의 주요 學生集團 行動事件에서 이를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

< 表3 > 82년 이전의 주요 意識化事件

事 件 名	日 時	概 要 및 이 슈	性 格
霧 林 事 件	81. 1	서울대생 중심 社會主義 國家建設企圖事件	현재제부정→民主社會主義 건설
學林事件(全民學聯)	81. 6	全國民主學生聯盟을 조직, 社會主義 國家建設	買辦資本主義 이데올로기 →社會·共產主義
study 클럽사건	81. 3	學園 내 이념서클의 교회 에서의 意識化教育事件	의식화教育을 통해 暴力으로 政權打倒
同學 및 夜學會事件	81. 4	共產서적탐독의식화사건	勞動鬭爭
釜 林 事 件	81. 6	위장취업→기업침투	막스理念에 의한 社會主義
錦 江 會 事 件	81. 7	民族革命 정부수립	反政意識化
서울대 under사건	81.12	反政 鬭爭示威 농성	反政鬭爭
청 진 회 사 건	80.12	反政府 意識化활동	現體制 모순지적
사 원 회 사 건		불교학생회 좌경의식	社會主義 實現

< 表4 > 83년의 主要意識化 事件

무장봉기 구상안사건	83. 2	광주사태와 같은 民衆蜂起 기도	民衆主體社會主義 국가건설
민족교육연구회사건	83. 1	노동자에 대한 意識化 擴散	現政權의 타도
농촌문제연구회사건	83. 1	노동문제·농민문제 意識화 수련	의식화수련 주도
연세대경제학회사건	83. 3	후진국 경제론 意識화	학원사태 주도
忠 南 大 우 리 문 화 연구 회 사 건	83.11	제적·휴학생의 政權타도	社會主義 국가건설
慶北大지하서클사건	83. 5	政權의 正統性 否認	"
서울대 6개서클연합사건	83. 1	現政府를 獨裁政權으로 규정	政權타도

〈表 5〉 學園自律化(83.12) 이후의 集團行動

事 件 名	日 時	概 要 및 이 슈	性 向
· 軍人隊者위병연합사기도사건	84. 5	광주시태 위령, 김태훈 위령제 명분으로 시위	政 治 性 向
· 訪日反對	84. 9	政治鬭爭의 名分 學自推委→學民鬭委로	政 治 性 向
· 民韓黨舍亂入	"		"
· 호국단거부, 학생회 부활요구	"		"
· 학과조정반대	84.10	학내문제의 이슈화	暴 力 化
· 유신독재타도 기념 및 군사 정권 퇴진	"	現實介入	"
· 民正黨舍亂入	84.11		"
· 美文化院占據	84. 5		"
· 新民黨舍농성	85. 6		"
· 民正黨연수원점거	85.11		"
· 光州美文化院점거	85.12		"
· 서울대연합시위	86. 3	헌법철폐	"
· 全經聯회장실점거	86. 3	매관독점재벌응징	"
· 建大점거사건	86.10	北侵주장, 독재규탄	"

以上の 學生集團行動 中 學園自律化(83.12) 3년째인 85년의 狀況은 심각한 前이었다. 즉, 방학 中 2.12총선 때에는 이미 現實政治에 구체적인 힘으로 作用하여 選舉의 狀況에 큰 변화를 느끼게 하였으며 개학과 더불어 學内外의 示威를 포함하여 기습점거, 방화, 投石, 농성 등의 豫測不許의 수단으로 가히 自由自裁의 行動을 구사한 셈이다. 즉 大統領의 放美反對, 4.19,5.18의 示威에 이어 5월 23일에는 서울 美文化院을 不法占據, 농성했으며, 6월의 新民黨舍 농성, 11월의 民正黨中央政治研修院 亂入, 12월의 光州 美文化院 점거농성 사건들이 85년의 學生集團行動의 주요 대표적 事件이었다. 이외 勞學, 農學 연계를 위한 위장취업이나 농촌계몽활동 및 방학 中 camp 등 意識化 活動은 학원사태에 계절과 장소가 없음을 말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政策當局의 5원칙을 둘러싼 總學生會 구성시비도 그 진원지가 되었다.

이와같은 行動은 全學聯을 형식적 外延으로 삼아 三民鬭가 실질적 母體가 되

어 理論의 무장 行動의 聯合化의 성격이 두드러지면서 깃발, 이화언론, 일보전진 등의 강령에서 좌경의 색채를 띠우면서 그 性格의 轉位가 이루어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大學街의 유인물인 ‘깃발’을 제작 배포하고 민족민주혁명이념(NDR)을 내세운 서울대 이념서클 ‘민주화추진위원회(民推委)’ 결성과 관련 利敵團體構成罪가 적용 판별되기도 하였다.

<表 6> 83 上半期 集團行動性向 分析

總 關 聯 者 262		意識化關聯者	⑤ 參 加 動 機							
		155(42) 59%	서클:125 (40) 81%	個 別: 6(2) 4%	成 績 :18 42%	가정: 2 1%	친구의뢰 : 4 2%			
① 學 生 身 分	제 적	10 (1)	⑥ 지역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60 11 8 5 42 9 10 19 27 31 28 27 3	⑦ 대학별	서 울 고 려 연 세 성 대 서 강 전 국 경 회 단 국 동 국 외 대 전 남 경 북 기 타	58 42 31 44 5 9 4 4 7 3 12 9		
	휴 학	34 (1)								
	문 제	30 (1)								
	경 고	48 (6)								
	일 반	140 (33)								
② 宗 教	기 독 교	20 (3)	충 북	10	경 회	4				
	천 주 교	12 (1)					충 남	19	단 국	4
	불 교	7								
	무	223					전 남	31	외 대	3
③ 學 年 別	1	17	경 북	28	전 남	12				
	2	54					경 남	27	경 북	9
	3	90								
	4	95								
④ 性 別	일 반	6	기 타	3	기 타	9				
	男	231								
	女	31								

〈表7〉 80年代 集團行動추세 分析

年 度 別	意識化事件數	總 集 團 行 動 數		
		期 間	件 數	月 平 均
81	26			
82	32			
83	42	83.12 ~ 84. 8	707	88.4
84		84. 9 ~ 85. 2	792	132
85		85. 3 ~ 85. 8	1,438	239
		85. 9 ~ 85. 9	184	184

Year	Number of Cases
'81	26
'82	32
'83	707
'84	792
'85	1438
'85.9	184

이상의 대체적 흐름과 성격의 판단을 토대로 이의 性向과 趨勢를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즉, 意識化의 추세가 83년의 上半期의 경우 뚜렷(59%)해지면서 서클중심적임(81%)을 알 수 있었고, 學生 신분상으로는 분재학생이, 학년상으로는高學年이, 종교상으로는 기독교가 특성요인으로 나타났다.〈表3-6〉

2. 集團行動性格 變貌

(1) 歷史的 의미의 民族運動과 國民統制

우리나라의 學生集團行動을 行態面에서 特性을 說明하고 이해하기 위하여는 時代別 狀況에 따라 그 目的과 實行方法을 중심으로 역사적 觀點(historical approach)에서 먼저 보아야 설명력이 높아진다. 이 같은 斷面만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규정하여서는 현상의 說明도 實體의 分析도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도 수립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우선 1900년을 우리나라 근대적 초기의 外勢 影響 발단기도 보았을 때 이 이후 1945년 해방되기까지의 반세기 동안에 學

〈表7〉 80年代 集團行動추세 分析

年 度 別	意識化事件數	總 集 團 行 動 數		
		期 間	件 數	月 平 均
81	26			
82	32			
83	42	83.12 ~ 84. 8	707	88.4
84		84. 9 ~ 85. 2	792	132
85		85. 3 ~ 85. 8	1,438	239
		85. 9 ~ 85. 9	184	184

Year	Number of Cases
'81	26
'82	32
'83	707
'84	792
'85	1438
'85.9	184

이상의 대체적 흐름과 성격의 판단을 토대로 이의 性向과 趨勢를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즉, 意識化의 추세가 83년의 上半期의 경우 뚜렷(59%)해지면서 서클중심적임(81%)을 알 수 있었고, 學生 신분상으로는 분재학생이, 학년상으로는 高學年이, 종교상으로는 기독교가 특성요인으로 나타났다.〈表3-6〉

2. 集團行動性格 變貌

(1) 歷史的 의미의 民族運動과 國民統制

우리나라의 學生集團行動을 行態面에서 特性을 說明하고 이해하기 위하여는 時代別 狀況에 따라 그 目的과 實行方法을 중심으로 역사적 觀點(historical approach)에서 먼저 보아야 설명력이 높아진다. 이 같은 斷面만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규정하여서는 현상의 說明도 實體의 分析도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도 수립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우선 1900년을 우리나라 근대적 초기의 外勢 影響 발단기도 보았을 때 이 이후 1945년 해방되기까지의 반세기 동안에 學

生들이 民族的 獨立運動을 부단하게 결행해 왔던 것은 行動의 方向과 目標가 祖 國을 제외한 全世界人들의 주장에 의하여도 그 정당성이 입증되었던 것이며, 더구나 外勢인 日本敵軍과 推爭하면서도 全民族이 舍心한 정신적 싸움이 核을 지 탱하면서 非暴力 示威方法을 택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의미의 集團行 動은 발전적 의미에서의 변화추구로 규정할 수 있고 이를 大衆的 學生運動 즉 movement 의미의 內包와 外延으로 說明할 수 있다. 그후 1948~1960년 까지의 1·2共和國下의 學生集團行動의 행태는 民族的 愛國運動으로 學團의 正化 및 社會問 題를 개선하는 민족적 정신이 강하게 작용하는 學生集團의 共同意思表示로 볼 수 있어 운동(movement)과 示威(demonstration)의 內包가 結合된 特性을 지 니고 있다. 즉, 愛族愛國의 次元의 國民統制의 일환이요 여론(public opinion)으 로서의 意思傳達이었다. 그러나 60년대와 70년대의 3·4共和國下의 學生集團 行動의 양상은 그의 완전할 정도의 주장을 集團的으로 表示하면서 다소 그 강도 가 가속·극심해지는 程度에 이르게 되었고 세계적인 S·P運動(Student Power)과 格을 유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70년대의 末에 克服했던 集團行 動이 주장의 전달이나 國民統制的 의미의 피드 백(feed back)기능으로 보다는 暴力에 의한 暴動의 양상으로 發展되었기 때문에 憲政秩序가 다시 중단되는 間 接的 動機로 까지 된 것으로 보아 4·19가 좋은 의미로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도 發展的 憲政秩序를 이어주지 못했던 것과 같이 이 또한 憲政面에서 보면 좋은 계기를 전승시켜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歷史的으로 보아 學生集團行動은 그것이 운동적 의미(movement)를 지 냈던 때를 제외하고는 의사표시로서의 統制的 의미를 지니면서 그것이 暴力을 수반했을 때에는 도리어 外國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50년대·60년 대·70년대의 學生集團行動은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은 歷史的 의미를 띠고 있 는 學生運動과 대모는 80년대에서는 현격한 行態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 이 다음에 집중적으로 규명해야 할 과제이다.

최근 學生들의 總學生會 구성을 위한 선거운동이 不法集會로 행하여질 뿐 아 니라 선거유세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건전한 言動은 學生會 구성자체를 스스로 포 기하는 정치적 작태로서 教育과 研究를 기본적 기능으로 하는 大學에서 이와같 은 유사 政治活動을 행함은 大學이라는 조직의 설치목적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 을 뿐 아니라 또 方法이 知性人의 公지와 大學人의 自尊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규정한 서울대 學長一同의 自制公文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2) 利益集團의 政治行爲

8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 學生集團行動은 行動群의 trust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interest에 의한 특징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이 80년대 이전의 集團行動, 즉 데모(demo)와 區別된다. 즉 부정부패의 社會改善, 民主主義 및 資本主義下의 矛盾 등의 시정을 위한 주장이 아니라 政策決定에의 영향력 행사나 그의 구체적 利益表明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와같은 集團行動을 政治家로서의 experience와 career로 생각, 부모들마저도 支援해 주고 있다는 사실은 의사表明을 넘어선 극도의 利己主義的 行動으로 發展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諸 外國의 利益集團(interest group)이 權益을 쟁취하고 地位를 확보하기 위한 結社의 형태로 조직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學生集團行動은 非結社的(non-association)이지만 機關化(institutionalize)된 조직과 그 下部權造를 가지고 바로 壓力團體(pressure group)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anomic interest group으로 화하여 暴動과 데모 같은 정치체제의 붕괴와 관련되는 行動을 보이는 다소 변칙적이고 정형이 정해지지 않는 利益集團의 特性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學生集團이 利益集團으로 分類될 수 없으나 이슈나 目標 및 手段 戰略面에서 보면 利益集團的 政治行動의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3) 急進이데올로기적 信念體系

人間은 어떤 社會에 있어서나 어떤 價値에 기댈 必要가 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를 찾는다.

이는 原始人에게는 宇宙論이 되고, 세계의 체계가 되고, 종교적 신앙이 되고, 현대인에게는 歷史的 秩序를 낳은 신념이 된다. 특히 現代社會가 이데올로기의 시대라고 함은 인간의 行動이 정신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그 신념체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自由主義, 保護主義, 社會主義, 共產主義社會가 전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大衆 民主主義가 擴散됨에 따라 이데올로기의 鬭爭이 격렬해지면 非理性的·非論理的 行動이 전부를 차지하게 되며 이것이 심화되면 맹종에서 오는 파괴, 죽음 등도 理性的 判斷을 벗어나게 된다. 최근의 學生集團行動에서는 일부의 學生들이 內心的으로는 社會·共產에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轉化되어 가는 양상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集團行動의 cohesion(結束 및 응집)을 강

화하고 참여를 촉구하기 위하여 배포하는 것발이나 이화언론 및 구호, 反省하는 學生의 反省文 등에서 직접 찾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는 行動戰略과 動員手段面에서 그것은 방어적이기보다는 공격적인 代案의 구사이며 평범한 도구이기보다는 특수한 장치와 준비물들이기 때문에 急進左傾思想에 물들어가는 변화를 우려케 할 만한 集團行動에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형태의 양상에서는 다른 일반적인 集團行動이 여러 要因이 혼합된 것으로 나타나나 이에 는 唯一無二의 단순요인만이 있음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하겠다.

(4) 社會病理的 心理에 의한 疏外恐怖의 退行的 拒絕行動

群集性 동물이요 大衆社會 속의 競爭主體인 人間이 能力에 의한 配分이나 放棄가 불가능해짐으로써 活動隊列에서 逸脫하게 될 때 고립감을 갖게 되고 이는 공포로 변하여 공격이나 暴力을 구사하거나 自虐하는 心理에 이르게 된다. 즉, 欲求不滿→孤立→恐怖→ 분노→적의→억압 등의 轉位の 역환이 성립된다. 學生들이 集團行動을 통하여 의사전달이나 주장을 合法的이고 正當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無批判的이고 물개성적으로 파괴하거나 잔인해지는 것은 정치·경제·사회 등에서 파생된 여러가지 近遠因이 있지만 급속한 기술응용 (technology)의 수용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난 데다가 이를 수용하려는 努力을 방만하게 하여 研究나 學習活動에 자신감이 결여되어 결국 學校에서는 成績이, 社會에서는 적응이 어렵게 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分析된다.

이것이 바로 Fromm이 말한 masochism이고 sadist 한 심리적 행동으로 연결되어 集團行動에서도 이에 의한 行動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대해 D. Bell은 韓國學生들의 행동과격화를 南北대치 현상에서 오는 政治機能의 欲求不滿과 大學人口의 팽창에서 오는 知的·情的·結合度의 弱化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특히 社會構造理論 (social structure theory)에서 지적된 아노미 (anomie)는 全體社會에 연결되는 個人의 의식붕괴상태로 전통적인 rule이나 권위의 붕괴를 지각하는 心理的 無政府狀態를 의미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기자신의 道德的 기반이 뿌리뽑힌 채 아무런 규율도 없이 오직 분열적 충동만을 가지고 사실의 연관성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민족의식도 의무관념도 갖지 못한다. 이 아노미 징후를 지닌 자는 비생산적 사고로 일관하여 타인의 추구가치를 부정하는 부정의 철학으로서 末來도 비전도 없이 오직 가냘픈 감정적인 선상에서 불안하게 생을 이어가는 정신생활을 하게 된다.

마키버는 아노미가 발생하기 쉬운 環境을 첫째,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연속적으로 자기신념체계에 동요가 일어나는 것 같은 충격에 처했을 때와 둘째, 어떤 심각한 환멸을 느끼게 된 결과 부정의 논리에 압도될 때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심적 속성을 그래지어(Grazia)는 단순아노미(simple anomie)와 급성아노미(acute anomie)로 분류하고 이들의 분해해결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즉 單純아노미는 被治者則의 의무 및 계약위반으로 생기는 이데올로기의 갈등 내지 신념체계의 약화와 이로 인한 불안을 의미함으로 애정, 상호접촉, 정서함양 등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반면 急性아노미는 支配者則의 보호의무가 위반됨으로써 被支配者가 갖게 되는 心的 혼란으로서 自殺, 정신병, 대중운동, 파시즘의 형태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緩和하려 한다고 보았다.

74년 5월 대대적인 구속자 석방과 유신철폐 데모과정에서 서울농대 4학년 학생이 시국성토대회 중 양심선언을 발표하고 할복자살한 事件 등 몇몇 政治的 主張과 관련된 사건에서 이와같은 사례가 있음은 단순아노미적 요인과 急性아노미적 要因이 동시에 作用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이는 急性아노미적 要因이 충격적으로 작용, 공통 가치와 감정적 유대의 결여, 고독과 상실감, 가치기준의 결여, 목적이나 방향감각의 상실, 생의 의미상실이 가져온 경우라 볼 수 있다.

죽음이나 주검의 Symbol은 살아서 실천하는 것보다 그 가치가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86년 3월 서울공대 건축공학과 2학년 학생이 연탄가스로서 자살한 것은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學校成績不良을 비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심리적 아노미 현상은 다음 표의 專攻適性 不適應者와 등록포기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 캠퍼스 내의 교육상 문제가 증가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 서울대 신입생 가운데 자신의 적성이나 취미에 관계없이 학력과 점수에만 맞춰 지망학과를 결정했다는 學生이 절반이 되는 54.1%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대 學生生活研究所가 올해 신입생 4천9백명 48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것으로 이는 갈수록 극심해지는 대학입학 지원과정의 눈치와 배짱지원의 결과로 분석되고 있으며 현행 大學入試制度가 빛은

병폐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大 學生生活研究所가 밝힌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 서울대 신입생 중 자신이 원한 學科에 입학했다고 밝힌 학생은 40.2%인 반면 자신의 適性이나 취미에 관계없이 학력고사점수에만 맞춰 지망학과를 결정했다는 학생은 54.1%로 밝혀졌다.

이같은 調査結果는 평상시 지망학과를 결정하지 못하고 마감창구의 지원상황에 따라 우선 붙고 보자는 지원 경향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처럼 適性을 무시하고 진학한 大學生들을 소속학과에 애착을 갖지 못하는 등 적응을 못해 학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재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이다.

그리고 서울大 합격자 155명이 신체검사에 불응, 합격을 포기했다. 신체검사 불응학생은 지난해(79명)의 2배 가량으로 농대가 89명으로 가장 많고 자연대 18명, 사회대 8명, 공대 7명, 수의대 7명, 경영대 2명, 가정대 4명, 간호학과 1명 등으로 나머지 19명은 인문대, 사대 합격자다.

신체검사 과정에서 이처럼 많은 신입예정자가 합격을 포기한 것은 올해 처음 있는 일로 지난해에는 79명, 84년도에는 88명이었다.

서울大 측도 이번 입시에서 마감직전까지 눈치를 보는 합격위주의 '安全支援' 현상이 두드러져 3백점대에서 가까운 고득점층에서까지 눈치작전이 확대됐고 이들이 합격 후 學科選擇에 불만을 갖게 돼 합격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도 이유라고 분석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 自由民主主義와 資本主義的 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들이 달성해야 할 두가지 근본과제는 첫째는 代議政治이면서 參與的 民主主義의 實質을 살리는 일과 둘째, 資本主義이면서 자유경쟁원리와 分配的 正義의 現實을 어떻게 조화있게 達成하는가 하는 것이라 볼 때 이는 결국 自由民主主義의 根本的 理念이 自由와 평등이고 보면 이를 실현하는 경제체제로는 자유경쟁을 통하여 인간의 潛在能力을 개발 촉진하고 富(wealth)를 창조하는 것이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체제는 전체주의적 체제보다 자유경쟁 체제가 우월하여 이는 自由民主主義에서 찾아 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歷史가 실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創造가 分配的 正義와 연결되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자유경쟁 체제는 民主主義 체제를 보장할 수 없게 되고 도리어 위협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誘因動機(incentive)에 근거한 자유경쟁에 의해서 富의 創造(pie size)가 극대화되면서 경제적 平等인 分配가 정의롭지 못할 때 民主主義와

資本主義는 더욱 유지 발전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分配正義가 실현되지 못할 때에는 기득권을 가진 안정된 계층과 소외된 계층, 富者와 貧者, 억압자와 피억압자로 分列→對立→社會不安·혼란되어 民主社會의 發展原理인 계속과 변화의 조화를 통한 漸進的 改革(reform)이 어렵고 급진적 革命(revolution)에 의한 사회변혁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民主主義 정치체제가 자율경제 체제를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강조되는 패러다임은 이제 경쟁만이 必要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協同(cooperation)과 共同作業(teamwork)의 새로운 창의적 協同方法의 開發인 것이다.

이것이 조직내에서는 집단민주조직(collective democratic organization)의 형태로 종래의 권위보다는 봉사, 단결, 협동이 중시되고 보상보다는 사랑·봉사정신이 중시되는 새로운 조직內의 民主主義이며, 産業에서는 産業民主主義 형태로, 大學에서는 教育民主主義로 연결되면서 정치적으로 民主主義에 통합되는 길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産業經濟나 大學의 教育은 그 속성이 까다롭고 환경과의 교류에 취약함으로써 충격을 주거나 위협을 느끼게 되면 위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國民의 혼란은 방지되어야 할 것이며 民主社會내에서는 中産階級이, 組織내에서는 전문 기술인이 두터운 중간계층을 형성할 때 이 취약함이 보전되리라 믿어 마르크스 이후에 資本主義 체제가 스스로 제도적인 배려로 중간계층을 육성하는 것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중요한 것은 중간계층은 자존의식을 갖추므로써 근면과 성실, 원리원칙에서 어긋나는 일의 배척精神과 긍지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이를 가능케하는 보다 높은 차원의 새로운 秩序를 創造할 수 있는 변혁적 리더십이 요청되는 것이며 2000년대에는 이것이 可速化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부분적 퇴행적 거절행태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靑年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식조사에서 보면 향후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임을 이들의 사고의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 의식지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人間과 自然과의 關係에 대한 價値志向

오늘날 우리 靑年세대가 대체로 自然을 지배의 대상으로 보는 가치지향을 보인다는 것은 자연을 인간의 편이를 위해 이용하려는 보다 진취적인 자세를 지닌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를 학력별로 보았을 때 고졸(50%)과 대졸(47%)層이 중졸이하 보다 이의

성향이 강한 면을 볼 수 있어 大學生의 자연관에 대한 가치지향, 즉 大學生이 보편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그들의 行動이나 사고에 秩序가 방향을 제시해 주는 類型化된 원리가 됨은 희망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時間에 대한 志向

時間에 대한 志向은 대체로 현재지향(47%)적이며 다음으로 미래지향(28%)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통적 社會에 대한 과거지향에서 近代의 社會에 대한 미래지향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現在指向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여성(33%)이 남성(24%)보다, 低學年보다 高學年이 상대적으로 더 미래지향적임을 알 수 있다.

3) 行動에 대한 가치지향

行動에 대한 가치지향을 욕구실현과 성취지향으로 양극화시켜 볼 때(욕구실현지향은 인간의 욕구충동의 자연스런 표현이며 성취지향은 社會·組織 등이 마련한 척도에 따른 성취의 결과와 관련된 行動) 대부분 우리나라 청년세대는 成就志向의 가치지향이라 하겠다(79%). 이때 욕구성취지향적 가치지향을 근대적 가치지향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行動에 대한 가치지향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때에도 여성(84%)이 남성(75%)보다 더 성취지향적이며 남성(26%)은 여성(16%)보다 더 욕구실현지향적으로 나타났음은 여성의 남성보다 더 미래지향적이었음과 유관하다고 하겠다.

4) 人間關係에 대한 價値志向

대체로 水平的 關係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65%). 그 다음이 個人主義 志向(2%)과 수직관계(7%)로 나타나 여기서 수직관계는 권위주의적 성격의 關係를 지향하는 것이며 수평적 關係는 계층적 지배가 아닌 同等한 關係지향을 뜻하며 個人主義의이란 이기적 요소보다는 個個人의 개체를 존중하는 서구적인 합리적 個人主義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이나 규범에 따르면 수직적 인간관계가 大宗을 이루어 왔으나 이와같은 규범체계에 변화가 일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청년세대의 인간관계지향 역시 전통사회적인 인간관계(수직적)에서 근대사회의 인간관계(개인주의적)로 이향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띄는 것으로 이런 지향에서는 모든 일의 결정과정에서 권위주의적 요소를 배격하며 社會나 集團의 구성원의 合意를 존중하게 된다고 하겠다. 이 역시 사회인구학적 조건에 따라 分析해 보면 남성(69%)이 여성(60%)보다 더 수평적 관계

를 지향하고 여성(25%)이 남성(16%)보다 더 個人主義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原則的 생각과 例外的 생각

國家民族觀은 국제시대에도 불구하고 國益을 최우선시하고(37%) 社會體制는 正義福祉의 自由民主社會 추구(79%) 함으로써 大韓民國과 우리 민족에 대한 자존심을 갖고 있는 건실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社會體制에서 11%는 고전적 자유방임 資本主義 社會 그리고 10%는 절대평등의 社會를 이상적으로 봄으로써 극소수의 극한적 내지 낭만적인 생각을 갖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犯罪經濟的 行動決定

오늘날 우리나라 大學生들의 犯罪性 集團行動에 대한 참가와 과격화는 Beckers Model에서 지적한 犯罪結果와 正常行動結果間의 B/C分析的 判斷에 의한 요소가 짙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Becker는 人間의 合法的 行動과 不法的 行動의 追求에 있어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를 두고 '시간의 할당'에 관계되는 model을 제시했는데 이는 심리적 비용과 편익(B/C)을 富와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Backer의 개념에 의하면 犯罪를 저지름에서 나오는 기대효용인 이득(gain)을 다음 equation에 따라 判斷한다.

$$EU = pU(Y - f) + (1 - P)U(Y) \dots\dots\dots \textcircled{1}$$

EU: 개인의 기대효용

p: 체포될 수 있는 주관적 확률

f: 체포되었을 때 처벌의 금전적 상당액

Y: 犯罪로부터의 利益

U: 個人의 효용지수

즉 EU가 +로 되면 個人은 犯罪를 저지르게 되며 -가 되면 분명히 犯罪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f > Y$ 이고, p가 충분히 클 때에는 EU가 -가 되므로). 그러나 이 假定은 처벌(形罰)의 적정크기 선택의 分析에 있어서 논란이 있어 이를 좀 변형 시켜 보면,

$$EU = pU(\overline{W} - L) + (1 - P)U(\overline{W} + G) \dots\dots\dots ②$$

- \overline{W} : 개인의 현재 富
- G : 犯罪로 인한 잠정적 수입
- L : 체포시 손실
- P : 체포확률
- $U(\overline{W})$: 어떤 代案의 효용

즉, 個人은 $EU > U(\overline{W})$ 일 때 犯罪行爲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위험에 대한 個人의 태도와 L, G, P의 변수의 크기에 대한 결정은 도박에 가까우므로 個人이 富의 限界効用이 감소되는 위험회피를 생각한다면 P와 L이 확실하 낮고 G가 충분히 클 때만이 바람직한 판단이 될 것이다.

즉, 오늘날 大學生들의 集團行動의 참가에 대한 個人的 意思決定은 犯罪的 集團行動에 참가함으로써 얻게 되는 行爲의 결과인 처벌을 보상으로 생각하고 이를 정상적인 學業활동에서 기대되는 효용이나 成就와 비교하여 行動을 결정, 결국 集團行動에 참가하는 것이 報償이 더 크다고 보고 行動을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과거 상당기간 동안에 集團行動을 한 자에게 형사처벌 후의 社會에서의(주로 政界, 官界) 厚待는 물론 學校內에서도 호텔 등예의 초치 위로와 장학금 부여 등의 變則的 規範 적용에서 비롯된 예들이 이를 행동결정에 準據로 되어 왔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犯罪행태의 행태학적 이론과 경험적 연구 그리고 犯罪에 관한 공공정책 經濟學은 최소성 條件下의 人間行態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이 최소성의 존재가 경제적 行動 혹은 극대화 行動을 유발시킨다는 것이 중요한 전제이다.

따라서 各者의 행위는 행동극대화에 의해 특정 지워지며 犯罪行態 역시 최소성 조건하의 人間行動의 경우이다. 個人은 犯罪를 저지름으로써 어느 정도 만족될 수 있는 욕구(wants)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犯罪를 저지른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費用(cost)發生을 內包한다.

- 즉,
 - 체포와 처벌될 위험(risk)
 - 有罪로부터의 고통(suffering)
 - 다른 活動에 時間을 使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benefit)의 포기(opportunity cost)

따라서 犯罪行動은 기본적으로 經濟的 선택을 내포하고 있고 그러므로 경제분

석을 사용함으로써 分析될 수 있는 것이다. 犯罪을 처리하는 公共政策 (public policy) 역시 經濟的 選擇을 내포한다. 犯罪은 社會에 費用을 부과하고 社會는 이런 費用 들을 줄일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費用을 發生시킨다.

즉, 犯罪의 총량을 줄이는 것은 法집행 (혹은 재활개선프로그램 및 正當한 기회부여)에서 더 많은 비용을 쓰게 한다. 따라서 犯罪處理에 있어 적절한 public policy 의 이슈는 犯罪총량을 줄이는 것으로부터 純利益 (net benefits) 을 극대화 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즉, 犯罪때문에 社會에 부과되는 총비용 (total cost) 을 극소화하는 방법을 考察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經濟分析을 犯罪에 관한 政策공공정책의 分析 때 역시 응용할 수 있는 것으로,

- 처벌(형벌)의 범죄 억제효과
- 처벌의 여러 형태의 사회비용
- 犯罪의 특수형태에 관련된 여러 법집행전략의 사회비용

등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이들의 B/C분석기준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 表 8 >

	이 익 (benefit)	비 용 (cost)
一般的인 경 우	금전利益 作業環境改善 평생所得力增加 作業時間縮小 制度, 他人에의 복수	체포와 처벌의 위험성 (risk) 유죄의 처벌로부터의 고통 (suffering)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미래소득 등
學生行動	권위에의 도전 제도개선 政治的 立身 증가 장학금 등 수혜 心理的 불만 해소 이데올로기의 正立 엘리트의 주장성취	• 수업결손 • risk • suffering • opportunity cost : 수업결손, 미래 불투명, 취업곤란 등

이는 결국 犯罪的 行動 및 향후 學生行動에 대한 報償 Symbol 을 公共政策 (public policy) 면에서 어떻게 決定해야 처벌의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보상받는 symbol에 교환가치를 어떻게 인정하게 하느냐에 관건이 걸려 있다. 學生들이 合理的 사고로 行動을 일관하다면 B가 C보다 큰 한에선 集團行動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6) elite로서 使命意識과 歪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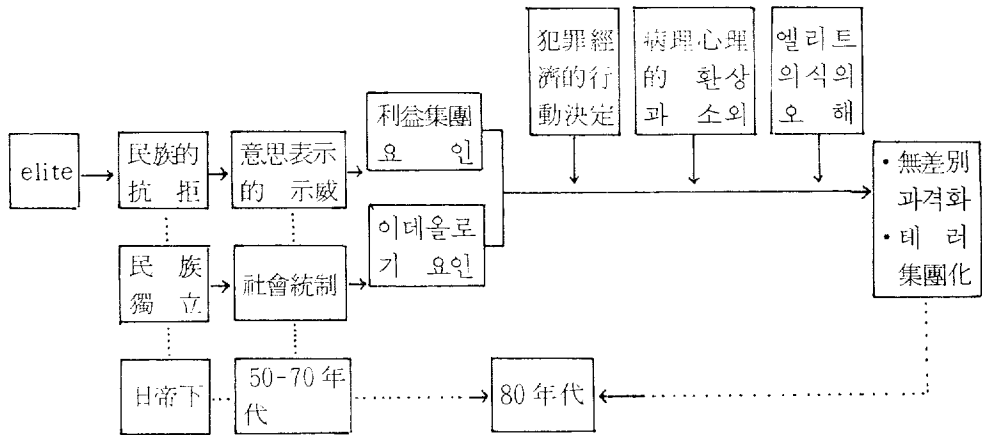
學園의 소요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 원인이 結合되어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學生들의 정의감의 발로에서 찾을 수 있다. 社會現實과 既成世代에 대한 불만 등이 겹친 것으로 학생들의 양식과 正義感에서 보면 개선 및 개혁의 욕구를 갖게 되고 전술의 學生運動의 一般的 性格에서 보았듯이 이에 대한 변혁은 오직 學生自身 뿐이라고 생각하고 行動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聯合戰略을 구사하고 意識을 擴散하면서 결속을 다져 끝내는 과격한 行動으로 써라도 社會 矛盾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社會構造를 양극화시켜 '적과 우리'로 고정시키는 부정적 行態가 있음이 여러가지 行動에서 나타나고 있다.

本來 elite란 보통 衆民에 대칭되는 말로써 한 나라와 社會의 文明 또는 文化的 遺産의 繼承能力을 가진 우수한 선택된 사람들로서 이를 리더 혹은 elite로 칭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것은 한 나라의 支配階級으로서 選拔된 指導者를 의미하여 그들에게는 noblesse oblige, 즉 귀한 신분에 상응한 社會的 의무를 부여한다는 말이다. 그들은 평소 보통 衆民이 못하는 어려운 일을 해야하며 國家나 社會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身命을 바쳐 싸우다가 생사를 같이 해야 하는 道德的 存在로서 위치와 역할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수의 學生은 이 道德的 존재로서 指導的 支配階級으로서 位置와 役割을 歪曲시키거나 환상 (illusion) 적으로 생각함으로써 行動決定이 非合理的으로 이루어지고 끝내는 道德的 存在가 아닌 파괴적 非道德的 존재로까지 發展하게 되는 양상을 최근 우리 大學生의 集團行動에서 찾아 볼 수 있게 된다.

이는 noblesse (귀한 신분)만 알지 oblige (의무와 사명)을 모르는 경우의 行動으로서 특히 名門化되어 있는 大學集團일수록 이 소수그룹에 의한 集團行動의 횡수와 양상이 격렬화되어 감을 전술의 行動動因分析에서 볼 수 있었다. 이는 분명히 엘리트 환상 (elite illusion) 의식에서 찾아 볼 수 있는 韓國의 특유의 양상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상의 6 가지 問題接近을 토대로 하여 韓國學生들의 集團行動을 概念圖式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으며 그 性格은 複合的인 것으로 對應戰略 역시 多角的이어야 함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상의 과격화 등의 요인을 日帝下의 體制에 대한 抗拒세력群과 同調勢力群이 6.25 전후의 左翼잔재와 結탁할 수 있었고 3.4共和國下의 정치꾼 및 不正蓄財잔재와 더불어 정리되지 않은 채 80년대 산업·多元社會의 諸要因과 結속됨으로써 學生集團行動에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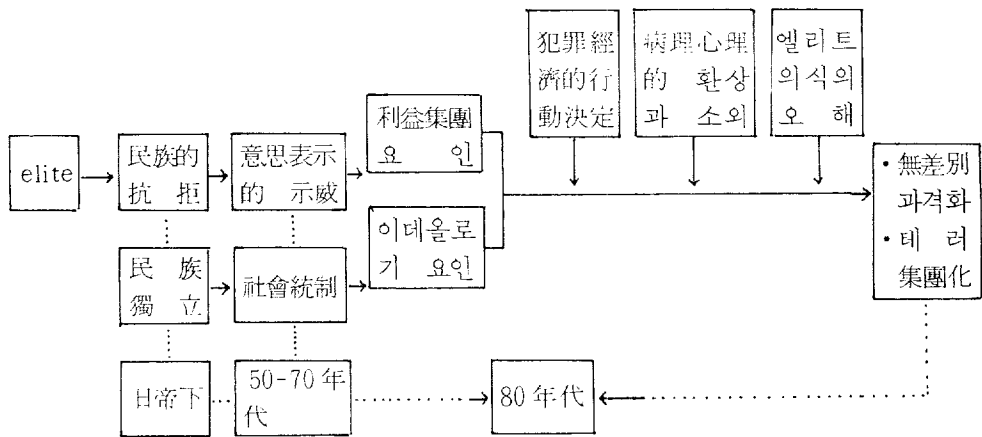
3. 우리나라 學生集團行動 行態의 特徵

우리나라 大學生集團行動의 行態特性은 '集團性'과 '行動性'에 있다. 日帝下의 集團性이 내쇼날리즘(nationalism)에 기초한 것이라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信念的(trust) 要因으로 이루어진 集團性으로 볼 수 있으며 80년대 이후는 個別利益的(interest) 要因이 강하게 작용한 集合性(aggregate)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보면 80년대 이후의 學生集團行動의 性格과 양상의 特徵은,

첫째, 性格要因인 精神, 心理, 動機, 欲求의 근본적 性向에 관한 것이 個別利益化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政治利益의 추구, 心理的 소외와 갈등, 이데올로기적 신념체제, 歷史的 저항유산, 犯罪經濟的 보상심리 등이 內在해 있으며 이것이

따라서 이상의 6 가지 問題接近을 토대로 하여 韓國學生들의 集團行動을 概念圖式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으며 그 性格은 複合的인 것으로 對應戰略 역시 多角的이어야 함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상의 과격화 등의 요인을 日帝下の 體制에 대한 抗拒세력群과 同調勢力群이 6·25 전후의 左翼잔재와 結탁할 수 있었고 3.4共和國下の 정치꾼 및 不正蓄財잔재와 더불어 정리되지 않은 채 80년대 산업·多元社會의 諸要因과 結속됨으로써 學生集團行動에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3. 우리나라 學生集團行動 行態의 特徵

우리나라 大學生集團行動의 行態特性은 ‘集團性’과 ‘行動性’에 있다. 日帝下の 集團性이 내쇼날리즘(nationalism)에 기초한 것이라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信念的(trust) 要因으로 이루어진 集團性으로 볼 수 있으며 80년대 이후는 個別利益的(interest) 要因이 강하게 작용한 集合性(aggregate)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보면 80년대 이후의 學生集團行動의 性格과 양상의 特徵은,

첫째, 性格要因인 精神, 心理, 動機, 欲求의 근본적 性向에 관한 것이 個別利益化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政治利益의 추구, 心理的 소외와 갈등, 이데올로기적 신념체제, 歷史的 저항유산, 犯罪經濟的 보상심리 등이 內在해 있으며 이것이

elitism으로 表出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行動方式 및 樣相面에서 다음과 같이 그 特徵을 규정할 수 있다.

① 全天候集團行動:계절, 휴일, 방학, 일기조건, 장소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全天候型集團行動이다.

② 多發烽火式行動:市街, 建物, 學校, 市場, 教會, 外國公館 등에서 동시발생을 기도하는 양상이다.

③ 高原(peaked cycle)持續型: 小數核心學生들은 日日行使式으로 행사를 지속할 뿐 아니라 이를 연중, 매년 반복하고 있다.

④ 名門校先發効果型:소위 名門校에서 集團行動이 先行되면 이의 확산이 타대학으로 전달되는 양상으로 진행된다.

⑤ 8大 防害企圖型:授業防害(學校), 生産防害(産業), 秩序防害(市街), 商業流通防害(市場), 公務防害(公共建物), 生活防害(大學 주변촌), 體制防害(政府), 外交安保防害(외국공관 및 미군철수)

⑥ 共同戰線構築型:勞組, 教會, 他校, 地域社會, 政黨, 利益團體, 壓力團體, 在野와 연계하여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전략을 취한다.

⑦ 手段의 暴力化와 準 terror型:파괴, 放火, 占據, 봉쇄(blockade) 등의 類似 terror 手段을 취하고 있다.

셋째, 集團行動 類型面에서 group 行態+mass 行態를 띠며 mass는 다시 구체적으로 movement적인 것과 무질서와 부화뇌의 양상을 띠는 데모로 나타냈고, 여기에 80년대 이후에는 collective 行態를 띠고 있음이 그 특징이며 이는 특히 crowds 行態에서 출발, 크제는 準革命的 양태를 띠고 있어 행태가 가변적이고 불규칙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日帝下의 學生運動은 popular movement로, 50년대 말과 60년대의 4·19 학생운동은 革命的인 행동행태로, 그리고 60년대~70년대의 것은 social movement의 社會統制的作用으로, 79년 10·26 이전의 부산·마산 사태 등은 準革命的 봉기로 그리고 80년 이후 지금까지의 行動은 collective action으로 볼 수 있어 group 行態가 內包되어 있는 오늘날의 學生行動을 分析하면 group+mass+collective behavior가 혼합되어 있고 그 進行段階가 불규칙하고 결합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오늘날까지도 區分없이 '學生運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行態는 그 行態의 특징적 속성과 양상에 따라 카테고리화하여 유형화된 행태용

어를 사용하여야 할 必要가 있다. 즉 日帝下의 民族運動(popular movement)의 성격을 띤 것은 '學生運動'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60~70년대에 지속된 行動은 社會改善과 개혁을 요구한 것으로 우리가 통상적 용어로 사용해 온 '데모(demonstration:示威)로 규정할 수 있으며, 80년대 이후의 과격화된 양상으로까지 發展된 학생운동은 group+mass가 혼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다른 형태로 발전되어 나타난 collective 行態를 띠고 있어 이것을 우리는 group+mass가 혁명적 봉기(revolutionary uprising)나 테러리즘(terrorism)으로 이행하는 과정의 초기 개념으로서 이를 협의의 '集團行動'으로 규정한 것이다(전술의 형성과정, 행동양태 참조). 그러므로 '學生運動'이라는 개념을 계속 사용할 경우 행동의 오해가 내포되어 예컨대 무법자적 행동(mob)을 하는 사람이 자기는 상급에서 분류된 學生運動의 좋은 의미의 행동에 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더 열광적일 수 있으므로 이상의 정의에 따른 용어의 사용에 구분이 있어야 하리라 본다. 즉, 日帝下의 것은 '學生運動'으로, 50~70년대의 것은 '데모 혹은 대중시위행동'으로, 그리고 80년대 이후 오늘의 것은 '集團行動'으로 보면 그 행태의 성격에 따른 용어의 구사가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용상으로는 여러 유형이 혼합되어 있지만 지금의 행동행태는 '運動'도 '데모'도 아닌 '集團的 行動'의 성격이 지배적인 것으로 봄이 바른 表現이다.

네째, 集團行動의 形成過程面에서 Group이 核心이 되어 mass로 發展했다가 collective 한 것으로 變形되는 것이 과거 分析의 일반적 경향이었으나 시대별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반드시 시계열이 일정하게 발생순서가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集團化의 過程에서도 대체로 6가지 要因의 變形樣相을 다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수렴적인 것으로 일시에 한 장소에 물리적으로 물리거나 동일한 목표하에 이해당사자로서 평소에 잠재해 있던 생각이 行動으로 표시되기도 하고(conversion) 心理傳染(contagion)을 통한 사고마비의 정신사태에 이르거나 스스로가 지도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여 행동하고 때로는 메지어 빙빙돌기(milling)을 계속하다여기에서 에코(echo)를 살피 분위기를 순환시킨 다음 집단적 흥분상태를 조성하여 행동참여자 동원함으로써 사회적 전염을 확산시키는 전염이론의 단면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때 빙빙돌기 과정에서 警察이 개입하거나 기타 물리적 제재가 해지면 극도의 흥분이 유발되고 混亂(demoralization)이 계속되면서 개체적 행동반응을 돌맹이 및 화염병 투

적으로 계속하면서 잠시 후에는 이 양상이 集團防禦 (collective defence)로 변한다.

이 集團防禦는 견고한 반응을 보이면서 양극화 되어 警察의 작용에 따라 그相對的 反作用을 보이면서 集團轉向 (mass conversion)으로 급변하여 생각이 일치하고 行動의 단결이 굳어지게 된다.

지금까지 별다른 생각없이 참여했던 학생, 근로자, 일반시민도 이와같은 과정으로 태도가 바뀌면서 처음에 단순한 反應 (response)이 크게는 革命的 봉기 (revolutionary uprising)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이 우리나라 學生 集團行動의 形成 및 發展過程에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최근 (86년 下半期)의 學園데모의 양상은 意識化의 단계를 지난 意識化 行動段階에 進入된 性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行動構成員의 가정이 다음표에서와 같이 中上流의 자녀들이 많은 뿐 아니라 새로운 학원투쟁조직 (愛學團)을 보이고 있음도 그 특징이다. 즉, 愛學團(전국 반외세 반독재 愛國學生 투쟁

전대사건 관련 학생들의 생활상황 (1,525명)

직업별	상업	농업	회사원	노동	공직자
	390	234	206	107	93

공 직 자

공직자 별	교사	내무 공무원	농협	교수	교통 공무원	체신 공무원	군인	경찰	판사	검사	기타
		37	115	8	6	5	4	4	3	1	1

생활 수준별	상류	중류	하류
	106명 (7%)	809명 (53%)	610명 (40%)

전공별	인문계	사회계	법학	기타
	437	228	97	

연합)는 우발적으로 생겨난 돌연변이가 아니다.

建國大 연합점거농성을 주도한 이 團體는 전학련, 삼민투등 기존 運動權 組織의 주도급학생들이 대부분 검거 또는 수배됨에 따라 鬪爭力이 약화된 공백기간을 메우기 위해 결성된 組織이다. 즉, 全國 22個 大學에 결성돼 있는 자민투 및 민민투의 잔존세력을 규합 11월 3일(학생의 날)을 기해 결성할 예정이었던 전학련의 行動組織인 셈이다. 문제권 學生들은 지금까지의 대학내조직 결성방식인「비공개조직-공식적 투쟁조직-공식적 대중조직」이라는 틀에 맞추어 「구학련-애학부」까지의 결성단계를 거쳐 전국규모의 조직체를 만들려 했던 것이다.

검찰·경찰의 조사에서도 愛學團은 전학련의 行動組織이고, 비공개조직인 「愛學團 地下指導 중앙위원회」의 공개투쟁조직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愛學團은 이전의 「民團과 組織 성격이 유사한 團體이다.

建國大사태로 愛學團라는 團體가 드러나고 그 「理念性」도 종전과 전혀 다르다는 점이 밝혀진 것은 충격적인 일이지만 學生組織과 示威양상의 變化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다.

學生運動에서는 理念的 전개가 行動을 앞질러 왔지만 「반공이데올로기의 분쇄」를 들고나온 이번의 경우에도 學生들이 표출한 行動의 근거에는 거대한 理念的 變化가 作用하고 있다. 學團 관계자들은 학생운동의 理念的 논리적 흐름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 큰 變化를 겪었다고 보고있다. 그 變化는 그동안 기존의 學生運動을 거의 지배해 오던 시민 민주주의혁명 「CDR」론이 전면적으로 폐기 되면서 민족 민주주의혁명 「NDR」론 반제민족민주주의 혁명 「AINDR」론 반제민중민주주의혁명 「AIPPR」론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NLPDR」론 등으로 분과된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대전환으로 인한 혼란 또는 혼미의 와중을 학생들은 스스로 사투(사상투쟁)라고 일컫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로 수명을 다한 CDR론은 우리 社會를 저개발된 「주변부 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함에 따라 政治的 民主化 경제성장정책의 대폭 수정 등을 운동목표로 잡고 「반독재투쟁」 「저임금 저복가정책 철폐」에 역점을 두었었다. 이때까지만해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韓國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國外的 보루로 인식됐으며 부정적인 시각으로는 「자국의 利益이나 추구하는 강대국」정도로 비친계 사실이었다.

그런데 이 CDR론이 80년대초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지난해 말부터 금년초에는 결국 「꼴동품」이 되고만 것이다. 변화의 근본적 동인은 10.26 이후의 學生運動의 실패 특히 光州事態에 대한 반성을 통해 「韓國社會問題의 해결을 문제를 國內의 것으로 한정해서는 결코 얻어질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운동권 學生들은 자신들의 시각이 당초부터 잘못돼 있었기 때문에 운동이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時期의 논쟁을 통해 등장한 새로운 논리들은 공통적으로 「韓國社會는 外勢(美國)와 국내 군부파쇼가 결합돼 지배하는 社會」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른바 「I·F(임페리얼리즘과 파쇼의 두문자) 결합모순」이라는 것이다.

이런 인식의 변화에 따라 서울대를 중심으로 각 大學 캠퍼스에는 전례없이 반미 구호와 주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韓國社會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韓國의 위치와 外勢를 타파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美國은 단순한 초강대국이거나 우방이 아니라 「韓國社會를 지배·조정하는 제국주의국가」로 탈바꿈하게 됐지만 「반공이데올로기의 분쇄」는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애학투가 나서고 서울대에 친북한 용공대자토가 나붙기 이전까지 「I·F」론은 I와 F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설명 하느냐에 문제를 놓고 다양하게 분화됐다. 그 대표적인 분화가 AIPDR론과 NLPDR론이며 AIPDR론을 견지한 실세력이 민민투(반제반군부파쇼 민족민주 투쟁위원회)로 나타났다.

民民鬪는 NDR론을 과도기적으로 수용하는 「시향착오」도 거쳤는데 기관지 「민족민주선언」(10월 20자로 10호까지 발간)에 나타난 내용을 분석하면 이들은 韓國社會를 「예속국가 독점 자본주의사회」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속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제 투쟁은 물론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반파쇼 鬪爭을 병행해야만 한다는 논리가 도출됐다.

이들은 지난 1학기때 全國 규모의 민민학련(전국 반제반파쇼 민족민주학생연맹)을 결성하는 등 學生 운동권의 양대 세력중 하나로 존재했었으나 최근에는 주도권을 거의 상실한 상태이다.

이에 비해 NLPDR론을 수용한 自民鬪(반미자주화반파쇼 민주화투쟁위원회)는 점차 세력을 키워 愛學鬪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自民鬪의 논리를 기관지 「해방선언」(10월10일자로 10호까지 발간)을 통해 살

러보면 韓國 社會는 「식민지」로 규정되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鬪爭은 바로 「민족해방투쟁」이며 이를 위해 必要한 일을 모두 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1 학기초에 충격적인 반미 바람을 몰고 온 이들은 2 학기가 되자 「반공이데올로기의 분쇄」를 들고나와 國民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1 학기 때에도 「레드 콤플렉스(사회주의 기피등)의 타파」를 외쳐 관계자들을 긴장시켰었다.

그러나 자민투족의 논리로 볼때에는 그같은 긴장이 우스운 일일뿐이며 중요한 것은 반공이나 반민중적이나의 여부」라는 것이다(1 학기 서울대 대자보)

이들은 지난 달 14일 서울대에 붙였던 「보도2」, 「보도3」의 보충 설명에서도 「必要없는 오해는 우리의 진정한 의도와는 관계가 없을 뿐 더러 우리의 사상적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이 급진적인 이념체계에 따라 組織도 매우 전위적인 방식으로 개편해 자민투의 원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구학련의 경우 규율준수의 의무, 결정 집행의 의무, 회비 납부의 의무, 비밀사수의 의무등 엄격한 의무를 조직원에게 부과했을뿐 아니라 암기의 원칙, 인별의 원칙 등 보안 규율까지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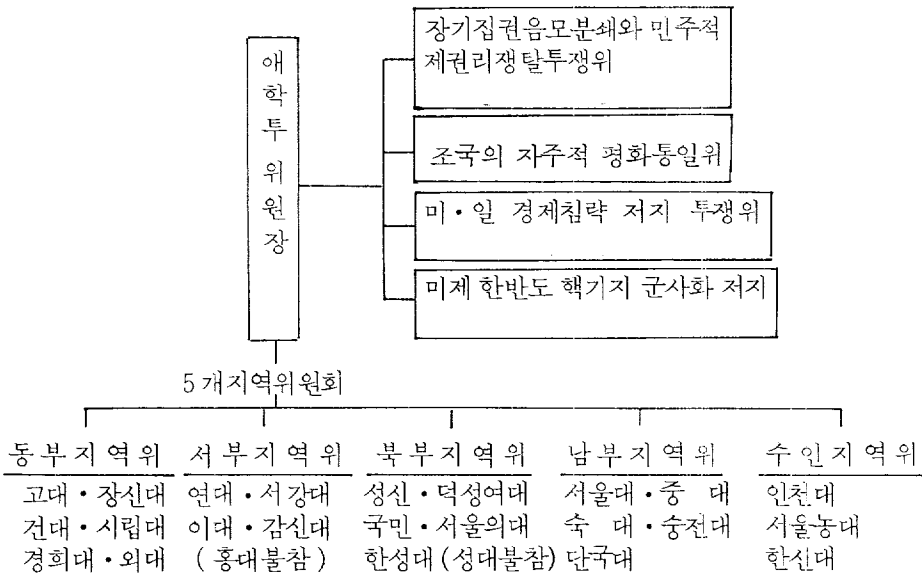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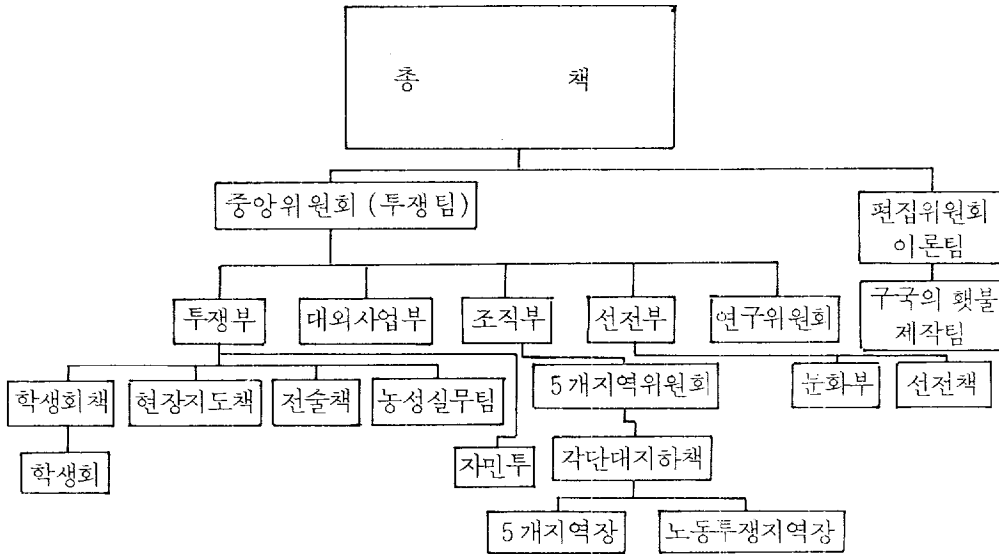
그러나 自民鬪는 1 학기중 서울대에서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民民鬪의 민민학련에 해당하는 대학간 組織을 결성하지 못해 活動을 확산시키지 못하자 지난달 28일 대학간 組織으로서의 愛學鬪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서울대 民民鬪는 물론 民民鬪의 아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성균관대와 홍익대등이 여전히 불참하고 있다. 성균관대 學生들이 建國대 사태에서 1명도 연행되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다.

愛學鬪는 학생의 날인 3일 고려대에서 그들의 대학간 조직인 전학련을 결성하려 했다가 일단 와해됐다. 그러나 이들은 「공식적 대중조직-공개투쟁 조직-비공개 조직」등 組織의 3중 구조원리에 따라 조만간 상식적 대중 조직을 결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이런 組織들만이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組織의 근저에 흐르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저류와 상부 組織의 논리가 반미는 물론 친북한 주장과 구호를 必然化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學生들의 머리속에 들어있는 세계관의 오류를 교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태」(문교부 관계자의 말)는 더욱 극렬해 질 수 밖에 없는 추세에 이르렀다.

<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조직도표 >

(한국일보 86.11.8)



V. 外國學生運動과의 樣相 및 戰略比較

20세기에 들어 學生運動은 대체로 初期와 中半期로 나누어 說明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우선 國別로 나누어 이를 時代別로 區分하고 한편 끝으로 이들간의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學生集團行動의 實相을 비교 접근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日本의 學生運動

(1) 20세기 初의 學生運動

日本의 學生運動은 1910年 7월의 부정부주의 사건이 日本社會主義 運動의 배경이 된다고 할 수는 있으나 엄격히 말해서 1차대전 후인 1918年 9月 東京大學의 新人會와 1919年 와세다 大學의 民人同盟會를 중심으로 資本主義의 발달에 따른 분제 치유의 社會運動으로 그리고 反封建的 體制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2) 20세기 中半의 學生運動

1) 學生運動의 勢力圈形成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인 1948年 9월 教育復興과 授業料引上反對를 주장하는 學生示威가 있을 때 全日本學生自治會總聯合會(全學聯)가 결성되었고 이때 日本 共產黨의 國際派學生이 指導部를 장악함으로써 좌익세력의 영향하에 들게 되었다.

1950年 同指導部는 共產主義者同盟系(共產同), Trotsky를 신봉하는 日本 革命的 共產主義者同盟系(革同系), 그리고 日本 共產黨系(日共)로 삼분되었다. 이들은 다시 共產同系는 統一派와 赤軍派 學生解放戰線으로 이어졌고 共產同系는 마루學同革 마루파, 마루學同中核派, 學生인터 프롤레타리아 군단으로 이어지면서 共產同系와 主導權爭奪戰을 전개했다.

한편 日本系의 반주류파는 1962年 8월 全國學生聯合會議(平民學聯)를 발족시켜 1964年 12월 代代木系全學聯으로 發展시켰다. 대체로 온건한 투쟁방법을 택했으나 反代代木系에 속하는 革共同系와 共產同系는 과격한 투쟁방법을 채택 공공기관난입, 살인, 인질, 린치 등을 자랑했으며 大學에서 분규가 발생하자 超派 閥聯合조직인 全國全共闘聯合(全共闘: 全學共闘會議의 약칭)을 결성하여 과격학생운동을 주도하였다.

2) 日本學生運動의 本格化

1948년 9월에 組織된 全學聯을 중심으로 日本學生運動이 격렬해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S.P(student power)의 물결이 世界的으로 휩쓸던 때였다.

처음에는 大學生의 문제에서 登錄金引上反對, 學園民主化 등으로서 요구조건을 제시하는 정도였으나 점차 學生들은 경찰력에 대항하거나 學生 상호간의 派閥鬭爭을 위해 가목, 쇠파이프, 돌, 병 등으로 무장하여 실력행사를 함으로써 亂暴性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 주도권 쟁탈의 파벌싸움이 극에 달함으로써 분위기를 악화 내지는 장기화시키게 된 것이다.

그후 1969년 沖繩返還交渉과 70년의 美日安保조약재검토를 앞두고 案休論爭이 있을 때 全學聯을 중심으로 이를 반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약체결 저지에 실패한 全學聯은 內部分열로 혼란을 초래했으나 1967년 10월 수상의 월남 방문저지운동, 11월의 수상의 미국방문 저지시의, 68년의 미항공모함 입항 반대 시위 등을 극렬하게 했으며 한편 이 기간동안 學校 내 문제도 이슈로 제기하여 기숙사비의 정부부담, 조합의 자치권 보장, 등록금 인하 등을 주장하면서 돌, 동등이, 화학물, 공공기관 공격, 바리케이트 설치 등의 방법으로 示威를 과격화시켰다.

이때 東京大의 경우 1969년의 入學試驗까지 포기할 정도로 험악하게 발전되었다.

3) 學生運動의 變質

이러한 포악한 學生運動은 支持勢力의 확보가 어려워지는 데다가 學生조직내의 내분이 일어나 學生團體간에 對立과 鬭爭이 발생하고 경찰장비력의 압도적 강화로 점차 學生運動은 그 힘이 弱화되기 시작하였고 여기에 한편으로 경찰당국은 데모현장에서의 對民弘報, 매스컴에의 협조요청, 특히 대학주변의 地域住民에 대한 C·R(Community Relations)作戰으로 學生運動을 고립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결정적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었고 또한 정상수업을 요구하는 일반 시민과 正常 學生들의 정부에 대한 강경하고 단호한 조처 주장과 여론화도 이의 弱화를 가속화시키는 要因이 되었다.

이에 日本 文部省이 68년 11월에 高等教育문제위원회를 구성하고 69년 5월에 '大學行政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국회에 상정, 69년 8월 17일 제정, 시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폐기요구와 대모도 있었지만 1969년 말 경에는 학생소요가 진정되기 시작하면서 日本學生運動의 1段階(1965~1970)는 끝나고 1971년에서

1975년의 2段階는 學生運動組織體 內部的 싸움으로 소요기간도 짧아지면서도 1973년을 고비로 고개를 숙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에도 일반적인 지지기반의 弱化, 여론의 부정적 지탄, 경찰통제력과 學校對處方策의 적극화 등으로 항지에 불려 고립화됨을 물론 자체내에서 주도권(hegemony)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투쟁력은 쇠퇴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1975년 이후의 3단계는 日本의 學生運動은 大衆的인 지지기반을 완전히 상실하고 대학과는 관계없는 社會問題위주의 정예베러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이 베러집단 중 가장 잘 알려진 단체가 赤軍派다.

이 집단은 1969년 9월 Trotsky파 혁명공산주의자동맹에서 분파된 것으로 1970년 3월 日本항공기 납북사건으로 테러활동을 벌이다 80년대에 와서는 뚜렷한 活動이 없었으나 최근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日本의 學生運動이 1910년대에는 日本社會主義運動으로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學生運動은 1918년의 사회분쟁 치유 및 反封建體制運動에서 비롯되어 1950년 전후의 全學聯에서 터동기를 맞아 1960년의 大衆的인 것으로 發展되었다가 1970년대의 쇠퇴기를 맞아 소수 베러집단으로 變質됨으로써 1980년대에 완전히 소멸된 歷史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1985년 11월 29일 일본국철 14시간 마비사건에는 도시게릴라사건의 주동단체인 좌익계 中核派의 介入이 확실한 事件으로 보아지므로 소수 베러의 재성을 우리에게 하기도 하며 人試강박관념으로 學生暴力이 늘어나고 있음은 靑少年 非行의 새로운 과제를 낳기도 했다.

그리고, 86.3.25일 대낮에 日本 황궁과 주일 미대사관에 도시게릴라의 로켓탄이 날아는 사건은 비록 피해는 없었다고 하나 日本社會에 특히 수도경비체제에 큰 충격을 준 것이다.

日本國의 상징이고 日本 國民 統合의 상징인 천황이 기거하는 궁에 흉탄이 날아들었다는 것은 日本國民 統合을 방위하며 日本國의 번영을 지향하는 체제가 내부의 이질요소를 제어하는 힘을 점점 잃어가는 證소가 아니겠느냐는 의문을 던지게 한다.

조용한 황궁의 숲에 로켓탄이 날아들고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황궁경비 본부가 범석을 쫓고 있을 때 히로히토 일황은 낮잠을 즐기고 있었으며 사건으로부터 1시간이 더 지나 깨어났을 때 보고를 듣고는 별다른 감상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나카소네 日本 수상은 사태를 중시 關係關係를 불러 경비태세 강화를 지시했고 아베외상은 外務省 儀典室長을 美대사관에 보내 '유감'의 뜻을 전했다.

황궁-美대사관 사건이 일어나자 경시청 경비부는 緊急對策會義를 열고 차량검문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특별경제체제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차량검문을 강화하면 할수록 도심의 교통체증은 심해진다. 市民들의 짜증을 가중시키고 警察이 사기저하되어 있는 가운데 민원의 대상이 될 우려도 있다.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게릴라 단속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게릴라들은 더 먼 거리에서 警察의 생각이 미치지 어려운 방법으로 발사할 수 있는 로켓트 개발에 열중할지 모른다.

日本은 범죄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되어 왔다. 세계에서 밤거리를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나라 가운데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세계적으로 공인되어 왔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日本 全國에서 통행차량의 트렁크를 열며 검문하는 곳은 나리타 공항입구 뿐이었다. 그러나 日本도 점점 위험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4) 學生運動에 대한 日本政府의 對應政策決定 過程

우선 警察의 行政的 對應措置로서는 1952.5.1일의 메이데이에는 연합국과 맺은 '단독강화조약 반대 투쟁이 暴力化되어 천황이 사는 황궁앞에서 共產黨員의 데모군중에게 발포가 처음으로 있었으며 1959.5.20일 폭넓게 빈조 安保鬪爭에는 데모대들이 총리관저를 난입, 경찰과 난투극을 벌임으로써 경찰장갑차로 국회정문에 바리케이트를 치는 등으로 대처했다.

그해 6.11일에는 6.19일의 美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방문을 두고 데모가 격하되자 당시 기시 수상은 자민당의 방일 연기론 주장을 일축하고 대신 국가공안 위원장과 警察廳 장관에게 만전의 치안대책을 지시함과 동시에 방위청 장관에게 아이크 방문에 따른 治安의 보조를 위해 자위대의 출동을 타진했으나 당시 아까기 장관은 자위대의 治安出動을 憲法上的 保障된 군대가 아니며 따라서 계엄령 선포는 불가능하고 國民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는 것이다. 그 후 아까기의 회고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정부·여당내의 자위대 출동론이 데모진압이 아니라 아이젠하워 방일을 위한 경비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 결정에 동의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정책결정과정에서 전술한 Allison의 II model로 설명될 수 있는 의사결정유형을 취한 것으로

로 볼 수 있으며 日本政策決定패턴인 合意模型 (consensus model)을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 한편 警察은 1969년 學生運動이 다소 진정될 무렵 지역사회 관계개선운동인 CR (community relationship) 운동을 대학주변의 住民에게 적극 전개하고 mass comm의 홍보활동을 지원받음으로써 學生運動을 고립화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사실 1952년에는 發砲 등의 극단의 조치가 데모군중에게 취해졌으나 1968년의 東京大 사건 등에서는 警察은 데모學生들과의 충돌에서 많은 피해를 입어도 결코 感情的으로 대처하는 일이 없이 加害者는 學生이고 被害者는 警察이라는 인식을 남김으로써 國民의 支持를 획득하려 하였다. 그리고 日本 警察은 데모진압장비를 강화 개선함으로써 잘 훈련된 기동대를 만들어 '끈질긴 인내'와 '강력한 대응'을 행동지표로 쌓아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때 文部省에서는 69.5월 '대학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시행, 1969.12월 말경에는 그의 學生運動이 진정기에 들게 되었다.

이외 東京大의 1969년 入學選拔의 포기과 '東京大 사건'에 대한 재판과정의 소란행위에 대해 당시의 사법적 조치는 강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學生運動이 격렬했던 69년의 東京大 사건이 재판거부, 法院의 물리적 제재와 권석재판 강행, 법정소란 辯護人拘束, 反省·非反省組의 분리심리, 재판방해 방청인의 퇴정령 등으로 歷史에 남는 기록이 되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600여명에 이르고 대부분 극렬좌익 學生이었다는 점에서 검찰은 흥기준비집합죄, 공부집행방해죄,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기소했고 이 사건을 맡은 東京地裁는 이들 피고인을 反省組와 非反省組로 분류, 모두 37개조로 나누어 분리심리키로 했으며 이에 反對하는 被告人과 辯護人, 방청객에 대하여 퇴정명령과 法廷拘束이 일어났고 보석자의 보석결정취소, 기동대까지 투입하는 등의 상황에서 권석재판이 강행되었다.

특히 강경파인 형사1부의 오카가기 재판장은 피고인 3명을 법정구속했고 소란을 피운 방청객은 監置 5일씩을 부과했고 변론태도가 불순한 辯護人을 法廷拘束하는 등 초강경의 司法的 對處가 뒤따랐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강경한 司法的 節次에 따라 警察의 司法的 대책으로는 적정하고도 타당한 법령의 해석과 운용에 따른 수사와 대항수단인 기술적 수사력 향상으로 수사목적 달성을 하는 것으로 ① 一般的 향의대책 요령의 책정 ② 상대방의 수

법과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파악 ③ 사실의 신속 정확한 파악과 그에 따른 구체적 법률의 검토 ④ 사전대책의 검토와 신속한 사후대책의 수집 ⑤ 사안처리체계의 확립 ⑥ 비밀의 보완 ⑦ 파생적인 사안의 예방과 진압 ⑧ 관계자 및 가족의 보호책 강구 등으로 되어 있다. 上記에서 보듯이 警察・大學・司法機關의 대응 전략이 맥을 같이 함으로써 해결이 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프랑스의 5月事態

(1) 경 과

프랑스의 5월사태란 1968년 5월 學生대모의 擴大에 따른 근로자와 勞動組合의 파업으로 인한 社會・經濟・政治의 全般에 걸친 위기상황을 말한다.

프랑스의 學生대모는 68년 3월의 낭테르 大學에서 學生과 警察이 충돌한 것이 원인이 되어 3월 22일 운동그룹(mouvement du mars)의 주도하에 5월 10일을 전후하여 파리의 중심가 생미셀가에로 옮겨지면서 소르본느 大學을 점거하려는 데모대와 경찰간의 충돌로 本格화된 사건이다. 學生들의 데모대들은 그들의 行動戰略으로 근로자와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것이었는데 勞動總同盟인 CGT(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는 처음에는 냉담했으나 후에 加勢하여 임금인상투쟁과 시위참여를 병행하였다. 그러나 이는 학생대모에서의 동조보다는 혼란했던 사회상을 이용하여 권익을 주장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5월 18일을 전후한 3일간은 프랑스 데모극성의 날들로 되었다. 이에 분계청소년단인 카탕게 용병대(Katangais)가 加擔한 것이 확대의 주요요인이었으나 그러나 68.5.31로 모든 데모사태는 종결되어 일시적 行動 및 저항으로 끝났다.

(2) 특 징

이 프랑스 5월사태의 특징은 첫째, 동기나 目的이 모호한 것이다. 물론 잠재적 원인을 내포하고 있으나 뚜렷한 이슈나 목표가 없어 警察과 學生의 충돌시 자극을 받아 참가한 우발적 요소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둘째, 그러므로 특정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特定 政治的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社會主義나 共產主義者에 동조하거나 호의적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드골의 퇴진요구도 있었으나 5월사태 후 국회해산에 따른 총선에서 압

법과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파악 ③ 사실의 신속 정확한 파악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의 검토 ④ 사전대책의 검토와 신속한 사후대책의 수집 ⑤ 사안처리체계의 확립 ⑥ 비밀의 보완 ⑦ 파생적인 사안의 예방과 진압 ⑧ 관계자 및 가족의 보호책 강구 등으로 되어 있다. 上記에서 보듯이 警察・大學・司法機關의 대응 전략이 맥을 같이 함으로써 해결이 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프랑스의 5月事態

(1) 경 과

프랑스의 5월사태란 1968년 5월 學生대모의 擴大에 따른 근로자와 勞動組合의 파업으로 인한 社會・經濟・政治의 全般에 걸친 위기상황을 말한다.

프랑스의 學生대모는 68년 3월의 낭테르 大學에서 學生과 警察이 충돌한 것이 원인이 되어 3월 22일 운동그룹(mouvement du mars)의 주도하에 5월 10일을 전후하여 파리의 중심가 생미셸가에로 옮겨지면서 소르본느 大學을 점거하려는 데모대와 경찰간의 충돌로 本格화된 사건이다. 學生들의 데모대들은 그들의 行動戰略으로 근로자와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것이었는데 勞動總同盟인 CGT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는 처음에는 냉담했으나 후에 加勢하여 임금인상투쟁과 시위참여를 병행하였다. 그러나 이는 학생대모에서의 동조보다는 혼란했던 사회상을 이용하여 권익을 주장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5월 18일을 전후한 3일간은 프랑스 데모극성의 날들로 되었다. 이에 분계청소년단인 카탕게 용병대(Katangais)가 加擔한 것이 확대의 주요요인이었으나 그러나 68.5.31로 모든 데모사태는 종결되어 일시적 行動 및 저항으로 끝났다.

(2) 특 징

이 프랑스 5월사태의 특징은 첫째, 동기나 目的이 모호한 것이다. 물론 잠재적 원인을 내포하고 있으나 뚜렷한 이슈나 목표가 없어 警察과 學生의 충돌시 자극을 받아 참가한 우발적 요소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둘째, 그러므로 특정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特定 政治的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社會主義나 共產主義者에 동조하거나 호의적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드골의 퇴진요구도 있었으나 5월사태 후 국회해산에 따른 총선에서 압

승한 것으로 보아 입증된다고 하겠다.

세제, 대모대 등이 소르본느 大學의 벽을 훼손, 대호나 플래카드를 걸러고 할 때 페인트와 붓을 빼앗기는 學生도 있었고 이를 빼앗기는 학생도 敵對反應이 없었다는 것으로 시설과 문화재를 아끼는 파괴적 행동꾼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5월 30일 데모학생과 근로자에게 드글 대통령이 방송을 통해 자제를 호소한 것과 파업으로 인한 생필품 부족, 교통마비 등으로 經濟와 社會의 狀況이 난국화 하자 이를 동시에 설득 받는 자세 등이다.

네째, 大學의 正常授業을 계속한 것이다. 이와같은 5월사태에 주요원인은 대체로 뚜렷한 것은 아니지만 潛在的인 것으로 ① 人口增加에 따른 장기적 大學教育施設의 부족에서 오는 불만의 누적 ② 精神面에서 資本主義的 消費社會의 패턴화된 生活의 혐오감과 거부반응 ③ 教授와 大學當局者의 權威的 家父長的 高壓的 자세에서 오는 人間教育의 상실 ④ 政治的인 面에서 10년 드글의 長期執權과 그의 官僚 體制에서 오는 罣證 등이라 할 수 있다.

(3) 對應戰略

끝으로 이 사태와 관련한 當局의 對處方案으로 퐁피드 수상이 급거 귀국하여 소르본느 大學을 점거한 사실을 묵인하기로 하여 자극을 피하는 政策的 판단을 한 것과 警察이 최루탄과 곤봉을 사용했으나 냉정·자제·침착으로 사태를 수습한 사실이다. 이때 진압경찰 조직은 CRS(Compagnie Républicaine de Sécurité)로서 이 사태이후 높은 국민적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4) 오늘날의 反省과 變化

데모가 극심했던 당시의 大學 벽보관은 反體制 포스타 대신에 파티의 광고가 붙는가 하면 프랑스 大學生의 정신적 변화가 더 크다는 사실이다. 10년 전 프랑스의 左傾學生들은 大學教育 자체를 거부했고 資本主義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敎科를 거부했으나 요즘 民間企業이야말로 生活의 터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장래의 희망도 實利性을 기준으로 평가·설정하고 있다.

이의 프랑스 有權者의 共産黨 當선율이 전후 평균수준인 20.25%에도 못미치는 11%로 떨어졌으며 25세 이하의 젊은이들의 支持度는 6%에도 못미친다는 것이다.

당시(68년)의 프랑스 國民의 1人當 GNP가 2,214 \$이었던 것이 오늘날 11,000 \$로 변한 것과 같이 학생들의 思考方式 또한 완전히 달라졌으며 최근의 共産黨系

프랑스 최대의 勞組(CGT)가 85년 10월 24일 결행한 총파업이 勞組이 탈자의 증가와 회사를 살려놓고 권익을 주장하자는 勞組員들의 현실적인 생각때문에 外國 파업이 실패한 것 등은 오늘날 프랑스가 17년전 프랑스인의 行動을 얼마나 잘못된 것으로 평가하는 지를 여실히 알 수 있게 한다.

3. 美國의 學生運動

美國의 學生運動은 1950년대의 民權運動과 더불어 시작되어 1960년대의 월남 전 반대운동 및 캘리포니아주의 福祉事業에 대한 예산과다지출의 반대로 절정을 이루어 1970년 초에 소멸한 운동의 한 흐름이었다. 즉, 이때의 구체적인 이슈들로서 그들의 運動目標을 연역해 보면 越南戰 수행에 대한 사람과 경제력의 소모, 흑인을 비롯한 소수민족의 차별, 대학의 교수 및 대학의 커리큘럼에 대한 불만, 核實驗反對, R·O·T·C 및 징병제도 반대 등이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1964년의 버클리 大學의 學生暴動과 1968년의 샌프란시스코 大學의 소요였다. 이들 學生運動에도 대학건물 및 시설을 점점하고 총장사퇴를 요구하는 등 다소 과격화된 양상을 띠기도 했으나 大統領 諮問機構의 설치, 지역협의체 구성, 캠퍼스 Police 실시등의 대처로 1970년대 초 이후에 소멸되고 지금은 전혀 學生들의 과격소요를 찾기 힘들다.

4. 中共등 기타 나라의 學生運動

20 C 초의 독일의 學生結社運動(Burschenschaft)과 철새운동에서 비롯된 學生運動은 1950년대를 거쳐 1960년대의 既成世代에 도전하는 S·P(Student Power)가 절정에 달하였으며 특히 68.5월 非常大權法案反對에 5만명의 學生이 참여함으로써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그런데 독일의 學生運動 중 프롬 마르쿠제 등 新左派 이데올로기 思想으로 무장한 독일 社會主義學生聯盟(SDS)이 학원소요를 주도함으로써 조직적이고 극렬·과격한 시위양상을 보였음은 당시 S·P 물결이 휩쓴 나라들 중 특징적인 양상으로 분석되며 이에 대한 政府의 결정 또한 강경한 조치였다. 즉 1972년의 州政府首相會議決定으로 1960년대의 극렬좌익계 學生의 公務員 任用制限이나 1975년의 高等教育基本法 및 州大學校法 改正으로 대학교과과정 편성에 주정부관여·대학응시요건강화, 수학기간의 제한과 성적불량자 학사조치 등이 취해졌다.

프랑스 최대의 勞組(CGT)가 85년 10월 24일 결행한 총파업이 勞組이 탈자의 증가와 회사를 살려놓고 권익을 주장하자는 勞組員들의 현실적인 생각때문에 外國 파업이 실패한 것 등은 오늘날 프랑스가 17년전 프랑스인의 行動을 얼마나 잘못된 것으로 평가하는 지를 여실히 알 수 있게 한다.

3. 美國의 學生運動

美國의 學生運動은 1950년대의 民權運動과 더불어 시작되어 1960년대의 월남 전 반대운동 및 캘리포니아주의 福祉事業에 대한 예산과다지출의 반대로 절정을 이루어 1970년 초에 소멸한 운동의 한 흐름이었다. 즉, 이때의 구체적인 이슈들로서 그들의 運動目標을 연역해 보면 越南戰 수행에 대한 사람과 경제력의 소모, 흑인을 비롯한 소수민족의 차별, 대학의 교수 및 대학의 커리큘럼에 대한 불만, 核實驗反對, R·O·T·C 및 징병제도 반대 등이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1964년의 버클리 大學의 學生暴動과 1968년의 샌프란시스코 大學의 소요였다. 이들 學生運動에도 대학건물 및 시설을 점점하고 총장사퇴를 요구하는 등 다소 과격화된 양상을 띠기도 했으나 大統領 諮問機構의 설치, 지역협의체 구성, 캠퍼스 Police 실시등의 대처로 1970년대 초 이후에 소멸되고 지금은 전혀 學生들의 과격소요를 찾기 힘들다.

4. 中共등 기타 나라의 學生運動

20 C 초의 독일의 學生結社運動(Burschenschaft)과 철새운동에서 비롯된 學生運動은 1950년대를 거쳐 1960년대의 既成世代에 도전하는 S·P(Student Power)가 절정에 달하였으며 특히 68.5월 非常大權法案反對에 5만명의 學生이 참여함으로써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그런데 독일의 學生運動 중 프롬 마르쿠제 등 新左派 이데올로기 思想으로 무장한 독일 社會主義學生聯盟(SDS)이 학원소요를 주도함으로써 조직적이고 극렬·과격한 시위양상을 보였음은 당시 S·P 물결이 휩쓴 나라들 중 특징적인 양상으로 분석되며 이에 대한 政府의 결정 또한 강경한 조치였다. 즉 1972년의 州政府首相會議決定으로 1960년대의 극렬좌익계 學生의 公務員 任用制限이나 1975년의 高等教育基本法 및 州大學校法 改正으로 대학교과과정 편성에 주정부관여·대학응시요건강화, 수학기간의 제한과 성적불량자 학사조치 등이 취해졌다.

프랑스 최대의 勞組(CGT)가 85년 10월 24일 결행한 총파업이 勞組이 탈자의 증가와 회사를 살려놓고 권익을 주장하자는 勞組員들의 현실적인 생각때문에 外國 파업이 실패한 것 등은 오늘날 프랑스가 17년전 프랑스인의 行動을 얼마나 잘못된 것으로 평가하는 지를 여실히 알 수 있게 한다.

3. 美國의 學生運動

美國의 學生運動은 1950년대의 民權運動과 더불어 시작되어 1960년대의 월남 전 반대운동 및 캘리포니아주의 福祉事業에 대한 예산과다지출의 반대로 절정을 이루어 1970년 초에 소멸한 운동의 한 흐름이었다. 즉, 이때의 구체적인 이슈들로서 그들의 運動目標을 연역해 보면 越南戰 수행에 대한 사람과 경제력의 소모, 흑인을 비롯한 소수민족의 차별, 대학의 교수 및 대학의 커리큘럼에 대한 불만, 核實驗反對, R·O·T·C 및 징병제도 반대 등이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1964년의 버클리 大學의 學生暴動과 1968년의 샌프란시스코 大學의 소요였다. 이들 學生運動에도 대학건물 및 시설을 점점하고 총장사퇴를 요구하는 등 다소 과격화된 양상을 띠기도 했으나 大統領 諮問機構의 설치, 지역협의체 구성, 캠퍼스 Police 실시등의 대처로 1970년대 초 이후에 소멸되고 지금은 전혀 學生들의 과격소요를 찾기 힘들다.

4. 中共등 기타 나라의 學生運動

20 C 초의 독일의 學生結社運動(Burschenschaft)과 철새운동에서 비롯된 學生運動은 1950년대를 거쳐 1960년대의 既成世代에 도전하는 S·P(Student Power)가 절정에 달하였으며 특히 68.5월 非常大權法案反對에 5만명의 學生이 참여함으로써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그런데 독일의 學生運動 중 프롬 마르쿠제 등 新左派 이데올로기 思想으로 무장한 독일 社會主義學生聯盟(SDS)이 학원소요를 주도함으로써 조직적이고 극렬·과격한 시위양상을 보였음은 당시 S·P 물결이 휩쓴 나라들 중 특징적인 양상으로 분석되며 이에 대한 政府의 결정 또한 강경한 조치였다. 즉 1972년의 州政府首相會議決定으로 1960년대의 극렬좌익계 學生의 公務員 任用制限이나 1975년의 高等教育基本法 및 州大學校法 改正으로 대학교과과정 편성에 주정부관여·대학응시요건강화, 수학기간의 제한과 성적불량자 학사조치 등이 취해졌다.

이와 유사한 학원사태로 동남아의 '1965 싱가포르의 사태'를 들 수 있다. 남양 대학을 중심한 左翼系列學生의 同盟休學, 勞組 주도하의 과업 등으로 부정부상태 를 초래케 한 이 사태에 政府는 國內 保安法을 개정, 대학의 불순분자의 입학을 통제케 하고 學生을 성인정치범과 동등하게 처벌하며 학원소요를 계속한 남양대 학을 폐교시키는 등 강경조처로 1968년 이래 大學의 소요는 소멸되었으며 학원 은 안정되었다. 이들 나라의 60년대 S·P운동은 이집트, 폴란드, 체코 등의 東歐獨國家, 이탈리아, 파키스탄의 反政데모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상의 諸國家의 學生運動樣相 및 對處 model을 韓國의 學生集團行動과 총체 적으로 그리고 연대기 (chronology) 別로 비교해 보면 다음 <表3-9>와 <3-10>과 같다.

<表3-9> 國別學生運動의 總體比較

比較準據를	韓 國	日 本
이 슈 (issu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自主獨立 (45이전) ○ 教育·社會改革 (60년대) ○ 反政·反體制 (70-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社會 및 反封建體制 (1910년대) ○ 安保鬭爭 (60년대 초) ○ 大學分糾 및 反戰 (60년대)
性 格	↓	社會性→政治性
促發原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學生自治會自律化 ○ 維新體制否定 ○ 光州事態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日安保條約 反對 ○ 오끼나와 返還요구 ○ 核적재 美함대 입항 反對
內在原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卒定制 등에 의한 心理的 壓迫 ○ 政治·經濟·社會문제 不滿 ○ 自由·民主 이데올로기의 變質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大學體制 不滿 (學生數 增加→ 비 elite화→교수접촉 不滿) ○ 既權威 否定 및 人間疏外
行動主體	全學聯 → 三民鬭 → 民民彈 등	全學聯→全共鬭
行動戰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全大學의 連繫 ○ 學·勞體系 유지 ○ 大學內 시설 및 公共건물 占據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授業 및 試驗拒否의 스트라이크 전술 ○ 대학성문, 교내, 학생회관 등의 봉쇄와 점거로 학생 등의 대학관리화

比較準據들	韓 國	日 本
展開過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治·經濟·社會·教育문제의 주장에는 지지가 自發性이 강하나 점거·暴力 등에 소수 이데올로기화 要因으로 결속된 限定的 行動을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校內 문제 改革과 民主化의 주장에는 一般學生 참여·지지 않았으나 大學의 封鎖·占據 등과 격화 단계에선 外面離脫
動員手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50년대의 단순示威 ○ 67.6-7投石戰 최류탄 霰彈대포, 솜뭉치 사용 ○ 80년대의 투석, 화염병, 霰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년대의 示威(단순) ○ 60년대의 각목, 쇠파이프, 돌, 병외, 農樂(68,69), 硝酸(68,69), 火焰瓶(68,69), 고무줄새총(69)
瓦解要因 및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授業방해 등에 의한 자중 ○ 연중내내 動員 및 벽보의 固着化에 의한 心理的 염증 ○ 自民闘와 民民闘의 의견 대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건파, 비판파의 對立과 계3석을 등장으로 自體理論 무장해체 ○ 社會와 學生, 學生과 學生, 派內 붕괴와 고립화 ○ 大學 占據, 封鎖 등 長期化에 염증
對應措置 * 政府 * 大學 * 警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 ·卒定制 自律幅 擴大 ·學園安定法 검토 유보 ○ 大學: 학사징계의 強化 ○ 警察: 集團行動의 사전봉쇄·近隣鎮壓 占據강제해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 임시 대학문제 심의회 설치 ·대학운영 임시措置法(69.8) ○ 大學: 東京大 新人生선발 포기 ○ 警察: ·학생 운동 지휘부의 內閣 對立 조장 및 조정 ·강력한 경찰력 유지로 점거 봉쇄를 해체 ·CR, PR에 의한 시민설득
環 境 (GNP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NP: 2,000불(1984) ○ 國際狀況: 南北긴장, 開途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NP: 1,436불(1968) ○ 國際地位: 先進工業國 ※ 1,947불(1970)
影 響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물방화, 파괴(2억7천만원: 85上半期) ○ 인명부상(85.3-8)(경찰: 2,124 교직원: 6, 학생: 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염병, 투석 등으로 一般市民 外面과 損害發生 ○ 市民 1人 死亡, 300人 傷害(68,69년)

比較遵據點	韓 國	日 本
共通 및 差 異 點	大學內 문제의 政治 및 社會문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勞·學의 연계투쟁 ○ 集團示威延長→暴力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學生闘爭의 독자투쟁 ○ 集團示威消滅→일부테러화
比較準據點	프 랑 스	美 國
이 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既存權威體제의 刷新(60년대) (大學·政府官僚制) (68년 5월 사태)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權運動(50년대) ○ 越南戰反戰運動(60년대) ○ 福祉사업·過多支出反對(60년대)
性 格 促 發 原 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社會改善 ○ 낭데르大的 學生·警察의 충돌 (곤봉, 구타 채류탄 사용이 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治性·社會性 ○ 越南戰의 消耗不滿 ○ 福祉 예산증대에 따른 근로의욕 상실
內 在 原 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大學의 改革 ○ 既存 價値觀에 대한 革命(대학교수, 大學管理 정부관료제, 장기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흑인 등 소수 民族 차별 ○ 대학 및 교수에 대한 不滿 ○ 核實驗 反對 ○ 학생의 政治活動 保障
行 動 主 體 行 動 戰 略	<p style="text-align: center;">없 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勞動者 및 勞動組合과 연계 (勞動總聯盟인 CGT와 共同戰線 形成) 	<p style="text-align: center;">없 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和大行進 ○ 大學건물 파괴 및 점거(버클리대) ○ R.O.T.C반대, 교수파업유도
展 開 過 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과 충돌시 우발적 참가자 多數 ○ 파괴적 행동권이 아닌 自律示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위, 교내시설 파괴·점거 등이 大學單位別(버클리, 샌프란시스코)로 이루어짐
動 員 手 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호, 플래카드, 벽쇄손 ○ CGT와 연계에 의한 파업으로 生必需品 不足 交通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건물 占據 ○ 市廳占據 ○ 교수파업유도(샌프란시스코大) ○ 학교신문 편집인 暴行 (샌프란시스코大)

比較證據들	프 랑 스	美 國
瓦解要因 및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大統領의 대학점거사실 묵인 ○ 大統領의 放送을 통한 自製호소 ○ 經濟·社會 혼란에 대한 자각인식 ○ 경찰의 자재, 침착, 냉정 태도 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위 학생의 외부와의 연계 차단한 후 自進解散 유도 ○ 大學自律 해결방안 모색 (캠퍼스 경찰제)
對應措置 * 政府 * 大學 * 警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 大統領의 자제촉구 ○ 大學: 大學自體의 改革 (관리, 교과과정 등) ○ 警察: 체류단, 곤봉 등을 사용했으나 침착성과 냉정태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 大統領 諮問機關 設置 (주지사, 경찰국장, 언론인, 교수, 변호사) ○ 大學: 캠퍼스경찰제 설치운영 ○ 地域協議體 구성 운영 (교수, 학생, 지역행정기관장) ○ 警察: 소요악화시 캠퍼스 경찰 支援 (각종 委員會 구성 參加)
環 境 (GNP 등) 影 響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NP: 2,214불 (1968) ○ 國際地位: 先進工業國 ○ 社會黨執權 (8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NP: 4,352불 (1968) ○ 國際地位: 先進工業國 ○ 福祉예산삭감으로 중산층 근로의욕 고취 ○ 越南戰撤收
共 通 및 差 異 點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共通: 學·勞운동의 연계화 ○ 차이: 일시적 운동으로 終了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共通: 大學의 改革에서 시작, 制度改革의 政治的 行動化으로 종료 ○ 차이: 60년대 S.P운동 종료

	日	本	美	國	韓	國	프랑스	東	歐	東南亞
		<p>僅法, 東京大 新入生 받기 선 포경의, CR, PR</p>	<p>館자문기 관선지 地或協 議體 선 지</p>		<p>가두시위 校內 단대鬭爭</p>		<p>消滅 ↓</p>			<p>反政 테 모</p> <p>이유부 간 大 統領사 임요구</p>
1970 년대	<p>테러集 團으로 一殘存</p> <p>공공기관 기능정지</p>		<p>消滅 ↓</p>	<p>제임령 에 休 등의 한 校</p>	<p>暴行 태行助</p> <p>시운美 文化院 民正黨 인수원 사사 건 85.11</p> <p>火招瓶 放火·古 據</p> <p>大學自律 化 · 學潮法定 法 검토</p>		<p>1970년 의 홀란 드사태</p> <p>反體制</p>			
1980 년대	<p>日徳가 派난동 (과격 中核派 ; 日本 마르크 스주의 學生同 盟中核 派(85. 11.29)</p> <p>通信케이 분단적· 火氣派 적· 威嚇 대비·와 업勞組合 學生同 盟(85. 11.29)</p> <p>警察犯 人체포 동선압</p>				<p>CGT 의 중 파업</p> <p>파업</p> <p>失敗</p> <p>大學政 革강 反對 (86.12.8)</p>		<p>1981년 홀란 드사태</p> <p>학원드 학원사 대(85. 7.25)</p> <p>직녀利 益보호</p> <p>高等教育法개정 · 大學自治權伸 張· 警察학내수 용인의해산권인 정· 시위학행차 억· 교수중성평 등</p>		<p>공공의 學生勞 働者示 威(85. 12.)</p> <p>小賊</p> <p>대회(체포· 구금없 음)</p>	

5. 우리나라와 外國學生運動과의 異同點

이상 10여개국의 學生集團行動에서 찾아 볼 수 있는 共通的 現象과 相異한 現象은 첫째, 動因面에서 이데올로기적 요인으로 學生운동이 시작된 나라 즉 독일·일본·싱가폴·폴란드 등은 法制度 및 政策的 대응이 강경한 편이었으며 가치 및 學園의 권위와 社會改革 등에 연관된 集團行動으로 시작된 나라 즉 프랑스·미국·中共·파키스탄등은 대화나 說得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그 나라가 어떤 體制이든 그 동기가 이념적일 때와 社會改革的일 때 문제에 대한 對應戰略이 각각 상이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의 이와같은 해결책으로 해소되었다고 볼 때 우리나라의 學生運動은 그 동기가 이데올로기적인 요인과 기타 타요인이 결합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도 이데올로기적인 데 대한 기타 요인에 의한 대응이 달라져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추세면에서 보면 우리는 日本과의 비교에서 그의 20년 시차를 두고 유사한 양상을 답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狀況的 요소로서는 日本이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던 점, 美國의 개방압력과 수입 자유화의 흐름, 장기 고도성장의 휴유증, 산업구조의 왜곡 등이 바로 그것이며 1968년과 1969년의 學生대모 극성기에는 1人當 GNP가 1,436 \$ (1968년기준)로서 프랑스의 2,214 \$ (1968년 기준)과 우리나라 2,000 \$ (1984년 기준) 수준에서 2,000 \$시대의 고민을 반영해 주기도 한다.

셋째, 學生集團行動의 양상과 手段의 사용면에서 보면 暴力化된 점에서 일본·미국, 프랑스의 1960년대 양상보다 20여년 시차를 두고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화염병, 쇠뿔치 사용시기도 20여년의 시차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이한 양상이다.

네째, 行動戰略面에서 勞組와의 연계는 미국, 프랑스, 폴란드와 유사하며 이것 역시 20년의 시차에서 本格化된 양상임을 최근의 우리나라 학생운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끝으로 對應戰略面에서 일본, 독일, 폴란드, 싱가포르가 大學教育에 관련된 法案의 制定 내지 改定으로 이에 대처했으며 프랑스와 미국, 中共 등은 대체로 大學, 政府, 警察이 對話와 自律로 해결하려 했으며 日本은 강경대처 외 地域社會와의 CR노력으로 고립화 정책도 병행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強穩 兩面政策과는 다소 상이한 점이었다.

이하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갈등의 의미와 해소정책, 결정 모형을 비교한 다

음 日本과 우리나라의 학원안정에 관한 政策決定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갈등의 의미와 해소

歷史는 결국 國民들의 열망과 창의력에 의하여 만들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전제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 역시 예외일 수는 없으며 전술한 우리나라 青年意識 조사가 이를 검증해 준다.

사람들은 흔히 elite 그룹의 行動에 의해서 정치권력이 독점되고 결정된다고 믿기도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역사의 진행 실체는 國民의 活力과 잠재력에 의존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변수의 크기가 현실인식뿐 아니라 미래의 方向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사회는 지극히 動態的인 과정을 지니고 있다.

國民들의 욕구와 열망 및 활력은 때로는 社會的 갈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勞使의 갈등, 학생세대의 갈등, 세대간의 갈등은 이와같은 사회적 動態의 한 단면이며 이를 반드시 역기능적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대화가 아닌 대결, 창조가 아닌 파괴를 가져오는 갈등 그리고 기본적인 社會秩序를 위협하는 갈등은 철저히 경계해야 하겠지만 창조, 혁신, 아이디어 탄생 등을 통한 발전의 동인이 되는 갈등은 社會를 活性化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動態的인 社會에서 必要한 것은 모든 갈등의 劃一的 통제라 아니라 갈등의 제도화인 것이다. 이를 통해 社會는 다양한 國民의 열망과 활력을 社會發展의 原動力으로 民主主義 발전의 기초로 活性化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발전을 바라되 안정을 지속하고, 변화를 촉진하되 혼란과 非能率이 없는 정책 프로그램으로 바꾸어져야 하며, 이 정책프로그램은 國民의 힘을 결집하고 전체의 뜻을 모아 적극적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치적 지도력이요체(essence)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 정치의 요체는 정책결정이라는 표현에 귀결된다.

(2) 日本의 정책결정패턴

日本 文化의 獨特性을 바탕으로 日本의 政策決定 패턴은 合意模型(consensus model) 중심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주로 日本의 관료조직, 자민당, 財界는 공동의 利益을 가지고 있으면서 政府를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이들

이 中心이 된 정책결정 패턴(pattern)은 협조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일본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elite의 협조적 行動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러나 일본의 정책결정 과정의 다원화가 불가피해졌으며 이는 협조적 행위보다 경제적 행위가 지배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이 입장이 葛藤模型(conflict model)이다.

즉 戦後 日本社會에서는 성취과정이나 제도상호 간의 관계, 그리고 先進産業社會가 겪은 社會變化와 연관된 것으로 60년대에 있었던 학원내의 葛藤이나 70년대의 국민운동, 대중운동이 암시하듯 심각한 세대간의 갈등, 가치관의 대립, 정치적 소외감, 고도성장속의 노사간의 긴장, 産業化에 대한 費用 댓가와 혜택에 대한 意見의 對立, 그리고 近來의 公害問題와 부락민의 社會的 地位에 대한 심각한 葛藤狀況이 바로 그것이며 이와같은 격렬한 갈등과 변화를 다루기 위한 시각을 갈등 model에서 찾으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이것은 美國內의 극소수 일본전문가들의 시도일 뿐 日本社會의 特色인 統一性, 集團, 合意, 調和가 集團의 一體感과 合意的 결정으로 연결되는 강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日本人이나 日本社會를 계속 지배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葛藤은 일시적 현상이나 단결회에 손상을 주지 않는 의식화된 表現形態로 경시해 버리는 예가 많다.

(3) 美 國

美國은 利益集團 목소리가 공약이며 建議빈도로 순위가 결정되고 토론을 거쳐 確定될 뿐 아니라 압력단체와 견해가 조정되지 않고는 政策變更을 못하는 特殊性이 있는 나라이다.

美國 政黨政治 制度의 核心과 生命力은 國民 거의가 利益集團이라 불리우는 단체에 참가하여 지지와 반대를 표명함으로써 정치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美國社會의 큰 특징의 하나는 各種 團體들이 많이 있다는 점이다. 직업에 따른 組合이나 協會, 政治團體 역할을 하는 女性地位向上會, 保守主義者同盟, 政治行動委員會 등 全國的으로 影響力이 있는 團體들 외에도 취미모임으로 요트, 승마클럽, 들새 관찰클럽, 콧수염모임, 원손잡이회, 연도별 자동차 소유자회 등 同好人 클럽에 참여하여 이를 통한 生活人이 되는 것이 美國人 生活의 패턴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모임은 평소에는 회원간의 친목위주로 운영되지만 선거철이 되면 강력한 利益集團이 되어 '國民의 목소리' '시민의 權利主張'의 군단이 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하원이나 지방의회선거에 출마하는 자는 양쪽 利益集團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며 反對者에게는 설득을, 지지

자에게는 공약을 하고 나서야 하며 이 과정이 바로 美國政治의 조정기능인 셈이며 美國의 정치 및 정책결정은 이같은 무수한 利益集團들의 균형위에서 있기 때문에 집권자라고 하여 마음대로 급선회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정책적 이데올로기를 결국 중도적으로 타협할 수 밖에 없으며 시일을 앞두고 利益集團들의 견해를 재조정하지 않고는 정책변경이 어려운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당과 후보들도 선거때는 많은 공약을 내지만 이런 공약이 어떤 과정에서 나오게 되었으며 이를 아는 지지 혹은 反對者는 얼마나 되며 이의 政策이 權成員들의 利益을 어떤 정도로 보장하는 지도 불투명한 것이 우리나라의 利益集團의 현실이다.

(4) 韓國에 있어서의 問題

日本과 다른 集團統一性, 調和文化意識을 가졌음에도 지나치게 學閥問題決定이 合理모델에 의존하고 있고 産業化 등으로 大衆社會化되어 감에도 利益集團의 목소리가 전혀 政策決定에 반영되지 못하는 점 때문에 政策決定過程에서 葛藤이 해소되지 않은 채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5) 日本의 大衆運營에 관한 臨時措置法과 韓國의 學閥安定法 決定過程

東京大 의학부의 개혁요구가 전체학생의 분규로 파급되어 결국 以美·以保安 투쟁으로까지 이르렀으며 警察과의 치열한 공방과 東京大 총장의 사임에 신입생 모집 중지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았을 때 사토오에이사꾸(左藤榮作) 수상의 자민당은 在野와 大學의 맹렬한 반대속에 同法을 變議·통과시킨 것이다.

이는 Allison model에서 보면 Model I (合理모델)에 의거 수상의 전적인 합리기준에 의해 내려진 결정으로 자위대의 大學內 진입시 model II에 의거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가 더욱 급박했을 수 있으며 타당한 결정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에 반해 韓國의 學閥安定法은 다음과 같다.

- 85.8.5 청와대 고위 黨政협의가 끝난 이후 정부입법으로 變議키로 하고 民主黨 中執委에서 입법 시기 등을 협의, 文敎部를 통해서 法시안을 발표키로 함(85.8.6)
- 6.27. 서울시내 동부지역 11개대 총장과 학원문제 논의, 의견교환·학원단정에 관한 한계, 장기대책, 선도, 준법정신이 논의 됨
- 7.6. 全國 45개대 총장, 정신문화연구원에 2박3일 합숙, 간담회에서 학내 폭력은 정부가 막아야 함에 의견일치.

- 7.24 국무총리가 全國 학부형 중앙협의회 예방 건의 관음, 주권위협, 폭력 테러행위·좌경화 예방의 법적 제도적 강구 건의

以上の 건의내용이 學園安定法 발기의 직접적 동기가 되었으며, 學園安定法 제정의 정부입장 전명에서 '총장의견과 학부모 건의'가 명시되었다.

이후 政策決定 參與者로는 文敎部長次官, 教育政策室長, 제3조정관, 法務部, 內務部(治安本部) 4~5명씩 參與하여 本格化되었다.

- 8.6. 民正黨 中執委員會 후 代辦人의 學園安定法施安發表 豫告
 - 12시 5분 문교부장관 發表
 - 구체적인 것은 黨政협의를 통해서 발표될 것을 시사함으로써 시종 黨·政이 협동
- 8.12. 民正黨 文公委 학원 특위 연석회의 지적내용 보완 약속
- 8.16. 民正黨 公청회 통해 각계 의견 수렴 예정
- 8.15. 大統領·新民黨代表·民正黨代表와의 學園法 등 國政論議
- 8.16. 大統領·國民黨 총재와 國政論議
- 8.17. 청와대 확대 黨·政 연석회의에서 學園法 8月 처리 강행 않기로 하고 유보. 시간두고 점점 의견 수렴(전 국무위원, 民正黨 中執委 이상 당직자, 大統領 비서실장의 수석비서관)의 참석.

<表3-11> 韓·日의 의사결정 model 비교

韓 國	日 本
공통 : model I (주도 : 大統領)	model I (주도 : 수상)
차이 : model I + 변형된 model II로 접근시킴	model I + Model II의 상황별 접근

ABSTRACT

A study on the analysis of student's
collective actionism and comparative with
other countries

Associate Prof. LEE SANG AHN

Demonstration that we always have called it "Demo" has a lot of various semantic concepts which we just can't simplify as a word, even though we faced the repeated incidents of student activism since 1900, the era of Japanese ruling colonialism.

That is to say, we can categorize demonstration as 3 typology which is student movement, group behavior, mass demonstration and collective action including crowd behavior which lead to Terrorism and revolution. As we know, our country, Korea has progressed rapidly in many aspects of lives both its national wealth to share the pie size (GNP) and its power to cope with any scheme to destroy public peace as people felt uneasy due to increased collective action and extreme violence.

But I'm so worried about violence of collective action in propotion to developing country.

Especially, I'm much more interested in criminal collective action

related to following approach which seem to be ideological, interest group, socio-psychology, criminal economy and elite-minded approach.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I can compare our students collective action with major country students action mainly Japan, France, America and so on.

American ones, etc as comparative approach.

In addition, the waves of activists are appearing sporadically in time and space, trying to skillfully avoid the governmental counter-measure such as the prompt dispatch of police task-force to the scene.

Beginning in their occupation of the U.S cultural center library earlier this year and Konkuk university later this year, students action has been successive sporadically.

Finally, I suggested some advice for student collective action in view of comparative method should be ended in just this time.

I'm sure that this comparative study could be momentum for changing directions of the concerned authorities and students themselves.

編輯委員

委員長	金	基	洙
委員	李	相	安
委員	朴	景	賢
委員	白	文	圭
委員	金	洞	清
委員	朴	炳	烈
幹事	劉	佈	材

治安論叢 (第3輯)

1986年 11月 日 印刷
1986年 12月 日 發行

發行人 洪 世 基
編輯人 警察大學治安研究所
印刷處 大元印刷社
電話 272-3697

